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최 / 본토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 Park, LLC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11일 오후 하버드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이 모여 현사태의 엄중함에 동의하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보스톤 대학가 시국선언 바람

하버드, MIT 양 대학 모두 시국선언
NE감리교 한인목회자들도 시국기도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표적인 유학생의 도시 보스톤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11월 4일 하버드 대학 학부 한인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모여 보스톤 지역 첫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래 11일 금요일에는 하버드 대 대학원 재학생 200여명이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11월 11일 MIT에서는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고 교직원 및 학부생들이 참여해 촛불 집회 및 시국선언 집회를 개최했다. MIT의 경우 시국선언 뿐만 아니라 MIT 특유의 의견개진 방법인 해크(Hack) 방법을 사용해 그림과 대형 포스터 등으로 집회 일정과 사건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11월 14일에는 뉴잉글랜드 연합감리교단의 한인 목회자들이 보스톤대학(BU) 마쉬채플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며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16일에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국선언 집회를 갖기도 했다.

4일 하버드 학부생들 시국선언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까지 거론했지만 11일부터 모든 시국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및 관료사회 전반에 걸쳐 고구마 줄기처럼 얽여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국민 지지율이 5%대로 떨어지고 실체적인 대통령 공백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ditor@bostonkorea.com

인종차별 신고 핫라인 개설



주 검찰청 인종혐오 범죄 신고
800-994-322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인종 또는 소수 혐오 폭력이나 위협에 직면한 매사추세츠 한인들은 MA주 검찰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됐다. 신고 번호는 1-800-994-3228번이다.

대선이후 미 전역에서 이민자 또는 소수자들이 언어폭력 및 신체적 협박을 당하는 등 인종차별 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MA 검찰청은 이 같은 신고전화를 개설해 대응에 나섰다. 인종, 국적, 종교, 소수자,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에 대한 묻지마 차별, 협박 등을 당한 경우 이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라 힐리 법무부 장관은 “매사추세츠에서는 차별과 싸울 권리가 있으며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핫라인은 검찰청 직원들이 관리하며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법무부 범죄청에게 배당된다. 증오범죄를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TBO 티보플레이

실시간으로 만난다

- 신규가입 고객 ~~\$39.99~~ **\$29.99** 원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 원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개회권 전환 고객님은 전월요금 일괄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MBC, SBS, EBS, tvN, OCN, JTBC, MBN, O'live, JTBC, O'live, JTBC, O'live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Real Estate Services

에나 정

주최·본토·비즈니스·발행·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J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enajung@ownnewengland.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Book

FDart 학문능력 키우기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88.9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ealty.com

하버드 학부 이어 대학원생 200여명 시국선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하버드 대학원 한인재학생 200여 명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11일 박근혜 정권의 헌법과괴 및 국정유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 케임브리지 매스 애비뉴 소재 하버드 메모리얼 교회에서 모인 하버드 대학원 재학생들은 “만리 너머에 있는 우리 또한 고국 국민의 허탈감을 함께 느끼며, 그렇기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변화를 외치는 국민과 뜻을 함께 한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는 국민의 준엄한 행진에 동참한다” 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은 하버드대학 14개 대학원의 재학생과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 지난 4일 하버드 학부생들의 시국선언 이후 하버드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은 전체차원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벌여왔다. 11월 9일 이들은 타운홀미팅 방식의 토론을 통해 현 시국의 엄중함에 동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에 기초해 선언문을 작성했다.

하버드 대학원생들은 한글과 영문으로 된 선언문에서 학생들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라, 둘째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정치권은 당리당락을 떠나 현 사태해

시 국 선 언

박근혜 정권은 그 도덕성과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한 시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부패한 국민이 주재한 파렴치한 국가 권력을 독재적인 방식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을 헌법상의 핵심 가치를 손쉽게 부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정정당正的인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우리는 변명으로 국면을 수습, 지연하고 있다.

이 시국선언은, 국민의 눈이 향하는 곳마다 박근혜 정권이 부패한 권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근본적으로 파괴되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부패정권은 완전히 타도되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짚어지고 있다.

박근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즉시 물러나라. 박 대통령은 이 어음 국민이 부여한 국가 원수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둘째, 수사 당국과 법조 및 언론에 따라 박 대통령 및 모든 관련자를 엄격히 조사하라. 정치적 성향은 보편적인 법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셋째, 정치권은 당리당락을 떠나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라. 국회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하여 조속히 조정을 열어야 한다.

한 시대에 있는 우리 또한 고국 국민이 느낀 허탈감을 함께 느끼며, 그렇기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정부에 대한 분노에서 정의를 향한 열망이었다. 우리는 완전한 연설 속에서 모든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과 뜻을 함께한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는 국민의 준엄한 행진에 동참한다.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한인 재학생 및 연구원 193명 발동

장명술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결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총 193명 개인의 서명이 고스란히 담긴 시국선언문에서 “이 시각에도, 국민의 눈이 향하는 곳마다 박근혜 정권이 연루된 도덕적 파탄의 정황이 끊임 없이 드러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근본적으로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이 정권의 국정운영은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짚어지고 있다” 며 시국선언을 감행한 이유를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MIT 킬리언 코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MIT 학생들

MIT 시국선언 촛불집회 "박근혜 물러나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MIT 한인 학생 및 교직원 50 여명은 11월 11일 (한국시간 12일) MIT의 대표적인 건물인 그레이트 돔 (Great Dome) 앞 킬리언 코드 (Killian Court)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118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MIT 한인 구성원들은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이 손상된 오늘, 우리는 이 사태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묻는다” 며 박

근혜 대통령의 하야, 성역없는 수사, 조속한 국정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MIT의 시국선언은 보스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대학원생 30여명이 모여 진행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작성했다. 이후 MIT의 전통적 이슈제기 방식인 해크(Hack)을 통해 홍보했다. MIT에서 사회 문화적 행사와 역사적 이슈 혹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짓은 장난의 형태로 풍자하여 전달하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IT의 전통적 이슈제기 방식인 핵(Hack)을 통해 홍보 대통령의 하야, 성역없는 수사, 조속한 국정의 정상화를 요구

▶▶2면에 이어서

는 행동 ‘핵(Hack)’ 답게 MIT 대학생들은 10일 스탠포드 센터로비 대형공용칠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풍자하는 그림과 함께 시국선언 일정을 적었다. 11일에는 MIT의 정문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로저스건물 로비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이번 게이트를 풍자했다.

한인 학생들은 MIT시국선언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하였으며, 본 행사가 국내에서 있을 촛불집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미국 학생들도 ‘핵(Hack)’을 보고 이번 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실했다. 일부는 페이스북페이지에 응원의 글을 남겼으며 실제 시국선언 촛불집회에 참가한 미국 및 멕시코계 학생들은 “성숙한 시위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MIT대학원생 및 학생들은 보스톤지역 대학 시국선언중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며 하야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editor@bostonkorea.com



MIT 대학원생들은 10일 스탠포드 센터로비 대형공용칠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풍자하는 그림과 함께 시국선언 일정을 적었다



뉴잉글랜드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사들은 11월 14일 오전 11시 보스톤 대학 마쉬 채폴 앞 마틴루터 킹 주니어 기념 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뉴잉글랜드 연합감리교 목사들 '박대통령 하야요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학생들에 이어 감리교회 한인 목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뉴잉글랜드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사들은 11월 14일 오전 11시 보스톤 대학 마쉬 채폴 앞 마틴루터 킹 주니어 기념 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0여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에서 목사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하는 목회자들로서 현재의 불

의와 부정, 부패, 억압 앞에 침묵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조국의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목사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부정부패를 일삼아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였고 신뢰도 잃었고, 현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정의를 원하기 때문이며 국민은 정의로운 대통령을 원하고 이러한 국민적 명령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국민의 뜻

을 거스리고 추진했던 사드배치, 위안부 졸속 합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국정교과서 추진 등을 국회가 나서 전면 폐기하고, 세월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뉴잉글랜드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사들은 시국기도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했으며 통성기도를 가졌다. 성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고난을 생각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조국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

hsb@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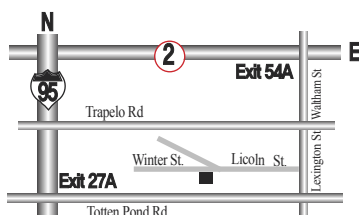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탈북자 문제 공부한 미 고교생들 "가슴 아프다"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 북한 인권단체 동아리 링크 세미나 개최
400 여명의 학생 및 교사들, 북한 인권의 실상 보며 열띤 토론 펼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이것은 TV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며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리버티 인 노스코리아 (Liberty in North Korea, 이하 링크)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 지부(회장 이영주) 소속 학생들은 14일 학교 소강당에서 북한 탈북자의 탈북 과정과 그들의 인권 문제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링크 멤버들은 세미나에서 동영상과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정권의 실상, 탈북자의 북한 탈출 동기와 남한으로의 여정 및 정착과정을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인터뷰에서는 2014년 ‘세계 젊은 지도자회의(One Young World)’에서 한복을 입고 나와 눈물의 증언을 하며 BBC 올해의 100대 여성에 뽑히기도 했던 박연미 씨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각 세션의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경청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탈북자들이 제 3국이 아닌 한국행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탈북자들은 왜 가까운 DMZ를 두고 중국

국경을 통해 탈북하는가”, “중국이 탈북문제에 인권적 측면에서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링크 회원들은 이날 참석한 방청객들에게 뉴튼 사우스 고교의 링크 구호팀 스티커를 배부하며 방청객들이 탈북자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9시 50분부터 약 한 시간씩 총 네 차례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회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약 100명씩 입장해 100명 정원의 강당을 가득 메웠다. 특히 12시 40분에 시작된 3회 세미나에서는 정원을 초과한 130여명이 입장해 자리를 찾지 못한 방청객들이 강당 바닥에 앉아야 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 학교의 교사 앨런 레인스틴(영어) 씨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중요시 하게 여기는 미국인들에게 탈북자 문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탈북자 문제가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방청객으로 참가한 재학생 메리나(15)양과 예나(15) 양은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이미 여러번 탈북자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봤지만 직접 세미나를 통해 실상을 들으니 그 문제가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의 탈북자 지원 동아리 링크(LINK, 회장 이영주)는 14일 학내에서 탈북자 관련 세미나를 가져 400 여명의 학생 및 교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행사들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고 말했다. 링크의 멤버 송소연 양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스럽다” 고 전했다.

링크의 사우스 고교 지부에는 현재 12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탈북자들과 그들의 인권문제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이외에도 티셔츠 판매 등의 모금활동을 통해 후원금을 마련하여 탈북자들의 탈북과정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링크의 장인영 학생(홍보담당)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 특히 한국과 관련

한 이슈에 한인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싶다” 고 말했다. 링크의 회장인 이영주 학생은 “한국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통일에 대한 갈망도 적은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처한 인권문제와 기아문제에 대해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전했다.

링크는 2004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 중인 NGO단체이다. 이들은 미국 내 대학교 고등학교 등에 구호 팀(Rescue Team)이라 불리는 지부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는 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274개의 구호 팀(Rescue Team)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은 총 지원금은 \$519,193으로 현재까지 구출한 탈북자는 192명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우주강사명 달이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11월 7일 ~ 25일 까지 (18일간)

잔치 1 홍삼콘골드 / 콘마일드 / 홍찬용 / 화예백 구입시 천녹삼 30g 2개 무료증정 (\$70 상당)	잔치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잔치 3 동인비 출시 후 가장 큰 프로모션!! 동인비 전제품 30% OFF	잔치 4 자녀용 제품 구입시 아이키커 2세트 무료증정 FREE GIFT

보스톤 정판장 브랜즈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 **781-238-0303** FedEx \$100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미네소타 대학의 코프만 메모리얼 유니온에서 16일 열린 시국선언 집회에서 학생들은 “대통령의 퇴진과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 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네소타주 대학 학생들 "대통령 사퇴요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미네소타 대학(UM)을 비롯한 미네소타 소재 매칼레스터, 칼레틴 칼리지 3개 대학의 40여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미네소타 대학의 코프만 메모리얼 유니온에서 16일 열린 시국선언 집회에서 학생들은 “대통령의 퇴진과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 을 강하게 요구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의 업무는 취임시 헌법 제 69조, 즉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헌법상 법치주의와 관련됨을 전제하며 시작된다” 고 적시하고 “현재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권자에게서 위임받은 책무를 방기했음을

입증한다” 고 밝혔다.

학생들은 언론이 집중하는 특정 인물들뿐 아니라 이 사태를 방관 및 방조한 집권세력도 책임이 있음을 시인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 “검찰도 부역세력” 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돌아가며 선언문을 낭독한 후 참여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및 외국인 학생들도 이들의 시국선언에 관심을 보였으며 한인 학생들은 이번 시국선언 주도에 대해 감사하다는 반응이 여러 경로로 있었다” 고 이번 시국선언 언론담당 안혜린 씨는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hsb@bostonkorea.com

11월 19일 무료진료 및 독감예방접종

보스톤 새생활센터, 내과 및 치과진료, 건강상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 생활 센터는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해 내과 진료와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내과는 진료 후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고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한 예약없이 환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찰을 진행한다.

이날 진료에서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을 원하는 한인들은 아침을 굶고 와야 정확한 혈

액 검사를 할수 있다. 또한 더욱더 정확한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나 체내에 체지방검사도 받을 수 있다.

보스톤 새생활센터의 무료진료는 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한인들은 스톤햄 소재 보스톤새생활센터(4 Spring St., Stoneham, MA)를 방문하면 된다. 진료에 관한 문의는 송연호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317-374-4786)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밀알 한인장로교회 무료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첼름스포드(Chelmsford)소재 밀알 한인 장로교회는 12월4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종합 무료건강검진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하버드메디컬 팀 20여명이 참가해 실시되는 이번 진료 행사에서는 독감예방접종 및 혈당 및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할 예정이다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는 978-501-9117,또는 978-244-0691로 할 수 있다.

박일종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밀알한인교회는 15 Alpha Road Chelmsford, MA 01824에 위치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업체 1 연합뉴스 1 미션원 회원사 1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앤도버 거주 최정우 씨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수상

〈생일, 마늘밭에서〉 2016년 수필부분 대상 수상
한국 방문 후 '모국어 가슴앓이' 글쓰기로 풀어
총 835편 응모작, 응모작가들의 나이 점차 젊어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5년만에 방문한 한국에서 맞은 생일, 6월의 땡볕아래 마늘밭에 나가야 했던 며느리이자 엄마 그리고 아내의 심정을 채지있는 수필로 승화한 최정우(43)씨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앤도버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5년 여름 한국을 방문해서 생긴 에피소드를 〈생일, 마늘밭에서〉라는 제목으로 응모해 올해 18번째를 맞는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분 대상을 안았다.

주보스턴총영사관은 15일 뉴튼 소재 영사관에서 대상 수상자 최정우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엄성준 총영사, 김병국 보스턴한미예술협회 회장, 오진관 동포담당 영사 그리고 최정우씨 부부가 참석해 축하했다.

최씨는 문학상 응모 계기에 대해 “작년에 한국에 갔다 돌아온 뒤로 한동안 향수병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특히 모국어에 목말랐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빌린 책과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들을 읽으며 갈증을 달래다가, 문득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 남편 유학에 동반, 미국으로 건너와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식적으로 한국서적을 멀리해왔다. 그러던 그에게 5년전 한국방문이 한글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수필에서 드러나는 그의 글은 그동안 글쓰기를 갖고 닦아왔던 것처럼 완숙하다.

재외동포문학상 심사위원들도 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해 “오랫동안 모국어와 모국어를 떠나 있는 분들의 글들임에도 다양한 어휘의 사용과 한국어의 단정함, 오롯함이 살아 있어 반가웠다” 고 평한 것



최정우(43, 왼쪽)씨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은 우연이 아니다.

최씨는 “글쓰기는 자기 성찰을 강요하는 면이 있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이라도 글로 옮겨놓으면 그 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이 조금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글쓰기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밝혔다. 문단의 등단 여부를 떠나 앞으로도 글쓰기를 계속할 계획이다.

2016년 봄에 공모했던 재외동포문학상에는 세계 29개국에서 83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8월 16일 성인이 18편, 청소년이 12편 총 3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중 시 부문에서는 성백균씨(미국)의 〈어머니의 마당〉이, 단편소설 부문에서는 배동선씨(인도네시아)의 〈지독한 인간〉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에는 김경주 시인, 최인석 소설가 등이 참여했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에는 렉싱턴에 거주했던 김연아씨가 소설부분 대상을 수상했던 것에 이어 두번째 수상이다. 당시 대상 상금은 500만원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상금이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최근 응모작들은 작가들의 나이가 젊어져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상금액은 반대로 가고 있다. (대상 수상작품 37면)

hsb@bostonkorea.com

최정우 씨와 이메일 인터뷰 1문 1답

“좀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글쓰기 하겠다”

수필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하셨는지요?

2002년도에 미국에 온 뒤로 영어를 마스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습니 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읽다가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한국에 갔다 돌아온 뒤로 한동안 향수병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특히 모국어에 목말랐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빌린 책과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들을 읽으며 갈증을 달래다가, 문득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삼아 가꾸던 텃밭도 쟁쟁 얼어붙은 겨울 동안 글을 쓰며 울적함을 달래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재외 동포 문학상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같이 읽은 뛰어난 필력을 보여주셨는데 글을 그동안 쪽 써오신 것인가요?

대학 시절 들었던 한국 현대 문학 강의에서 과제로 제출한 글을 보신 교수님이 글을 써보라고 추천하셔서 잠시 심각하게 등단을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다. 학부 때 전공이 신문방송학이다 보니 졸업 후에 프리랜서로 잡지사에게 글을 썼고, 출판사에서 근무하면서 잠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쓴 글보다는 누군가 시켜서, 혹은 일 때문에 숙제하는 기분으로 쓴 글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제 글을 쓰고 싶어서 쓴 글은 이번이 처음인듯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짓기 장원 등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듣지는 않으셨는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잠깐. 고등학교 때는 자율 학습 시간에 세계 명작 전집(사실은 하이틴 로맨스 시리즈도 종종....) 같

은 걸 읽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혼난 기억만 있네요..

평상시 글쓰기 훈련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간단한 메모외엔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글을 쓰면서 평소에도 글을 써야 하는 이유 몇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글쓰기는 자기 성찰을 강요하는 면이 있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이라도 글로 옮겨놓고 나면 그 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이 좀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글쓰기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단하셔서 계속 전업작가로서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등단에 상관없이 글을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핑계를 잘 대는 제가 글쓰기를 계속하려면 내부적인 요인 외에도 외부적인 동인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로 등단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가을보다는 봄을, 나무보다는 꽃을,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양이보다는 개를, 쓰기보다 읽기를,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행복하면서도 단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남편이 2002년에 유엔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그 해 6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14년이 되었습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이민전문가들, 트럼프 시대 이렇게 준비하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제45대 미국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취임과 동시에 불법이민자 200만~300만 명 정도를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각종 인종차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이민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는 13일 CBS방송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 중) 범죄자들과 범죄전력을 지닌 사람들, 갱 조직원들, 마약 거래자 등 200만 명을 추방하려고 한다. 아마도 3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추방되거나 감금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이와 더불어 극우 매체 "브레이크바트"의 창립자인 스티브 배넌을 수석 전략가로 임명 논란을 낳고 있다. 스티브 배넌은 인종차별과 백인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알트-라이트(Alt-Right)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향후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대선후보 때에 밝혔던 강경노선에서 결코 후퇴할 생각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뉴아메리카미디어는 9일 이민전문가들과 전화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밝혔다.

이민자 수난시대 예상

트럼프의 당선은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이민법률센터의 캐멀 이사헵 디렉터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민자의 권리를 상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염두에 둘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헵 디렉터는 "비록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헌법과 이에 근거한 사람의 권리는 결코 앗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 이민단속관들이 이민자들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수색영장을 보여야 한다. 또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바로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기본권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이민 정책까지 폐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 AB60 등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LA 경찰국장은 불법이민자들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미 각 시와 타운의 경찰들이 연방 이민단속국에 제한적으로만 협조토록한 소위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 케임브리지 그리고 서머빌 등은 대표적인 "이민자 보호도시"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16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이 같은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커먼웰스(매사추세츠)는 국제적인 곳이며 모든 이민자들이 환영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에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민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가족들이 대비할 것들

이민자 법률센터의 샬리 키노시타 변호사는 최소한 트럼프가 2016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DACA 프로그램은 1월 20일까지는 유효하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이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승인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므로 새로 신청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그러나 갱신은 8주가 걸리기 때문에 2년의 취업허가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민단속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불법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특히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주의 항목이다.

키노시타 씨는 불법 이민자들은 미리 변호사 또는 법률센터 등을 방문해 주의 사항을 점검할 것을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대학재학 이상 한인유학생 3천여명

대학 및 대학원 OPT 숫자 증감 거듭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한인 유학생수가 5년 연속 줄고 있는 반면 매사추세츠 한인 유학생수는 큰 폭의 변동없이 증감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연구소(IEE)가 11월 14일 발표한 2016년 <오픈도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OPT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총 2,972명으로 2015년 2,827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및 2014년의 3,086명과 3,074명이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한 상태다.

현재 미국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체 한인 유학생은 모두 61,007명으로 전 학년도의 63,710명보다 4.2% 감소했다. 한인 유학생은 지난 2011년 73,55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지난해에 비해 7.1% 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인 유학생의 감소세와 사

우디아라비아의 상승세가 맞물려 중국, 인도에 이은 3위자리도 내줘 4번째로 밀려났다. 반면 중국은 328,547명, 인도는 165,918명으로 각각 8.1%와 24.9% 증가세를 보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2.2% 증가했다.

뉴잉글랜드 지역 중에서는 로드아일랜드에 유학중인 학생들은 총 568명이며, 뉴햄프셔 한인유학생은 117명, 메인에는 46명이었다. 따라서 코네티컷을 제외한 뉴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재학중인 한인 유학생은 3,700여명이다.

매사추세츠내에서 외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노스이스턴 대학으로 11,702명이었다. 보스톤대학(BU)이 8,455명으로 뒤를 이었고 하버드가 5,679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MIT(4,575), 유메스 엠허스트(2,897) 순이었다.

한편 미국내 한인 유학생 감소세와 달리 한국으로 유학하는 미국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3219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대학재학 이상 한인유학생수

연도	유학생수	연도	유학생수
2012	2764	2015	2827
2013	3086	2016	2972
2014	3074		

자료 : 국제교육연구소(IEE)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크레딧 할수 교정
교통사고
파산
부동산 매매**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8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2016년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베스트 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블랙프라이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인터넷 구매의 발달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의 확대로 인해 실제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도어 버스터 등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 그럼에도 블랙프라이데이는 평상시 관심을 갖고 있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블랙프라이데이는 실제로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충동구매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베스트 딜을 찾아보자.

애플 제품 최고의 딜

예년과 마찬가지로 애플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애플을 대신해 각 소매점들이 딜을 제공하고 있다. 베스트바이와 타겟에서 애플 제품을 구입시 최고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베스트바이는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중이며 세일은 11월 25일 오전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타겟은 11월 23일 프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하며 24일 핑스기빙데이 당일에는 저녁 6시부터 문을 연다.(온라인은 추수감사절 오전에 세일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iPhone 7 or iPhone 7 Plus -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 무선 전화회사와 할부납부 계약을 체결시 최고 \$250 베스트바이 기프트 카드 제공

- iPhone 7 or iPhone 7 Plus -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 무선 전화회사 고객중 자격이 되는 고객은 제조 다운에 \$250 타겟 기프트 카드.

- iPad Pro 9.7" - 타겟 \$449부터 (\$150.99 할인)

- iPad Air 2 (All Models) - 베스트바이 \$125 할인

- iPad Air 2 - 타겟 \$274부터 (\$125.99할인)

- 애플워치 2 38mm + \$105 in 콜즈 캐쉬 (Kohl's Cash) \$369 - 다른 블랙프라이데이 딜과 가격은 같지만 추후 콜즈 캐쉬 \$105을 받을 수 있음

- 애플워치 1 \$198부터 (\$71.99절약) - 타겟(베스트바이의 경우 \$219부터 시작)

2016년 최고의 TV 딜

TV를 교체하거나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블랙프라이데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최고의 딜을 소개한다.

- 베스트 바이 24인치 LG LED 720p HDTV - \$79.99

- 베스트 바이 40인치 ProScan 1080p TV HH그렉(HHGregg) \$130

- 베스트 바이 49-Inch 도시바 LED 4K Ultra HD TV 크롬캐스트 내장 \$199.99

- 베스트바이 55인치 삼성 LED Smart 4K Ultra HD TV-\$479.99

- 베스트 바이 58인치 삼성 LED Smart HDTV \$427.99

- 타겟, 베스트 바이 50인치 삼성 Smart UHD 4K TV \$397.99

- 타겟 5인치 삼성 Curved Smart Ultra HD TV \$697.99(\$70 타겟 기프트카드)

hsb@bostonkorea.com



패뉴얼 홀 크리스마스트리는 80피트의 높이로 미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키를 자랑한다. (이미지 출처: faneuilhallmarketplace.com)

패뉴얼 홀 뉴욕보다 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11월 19일 노스엔드 패뉴얼 홀앞에서 점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11월 19일에 패뉴얼 홀에서 열린다. 보스톤에서 시즌 최초로 점등되는 이 크리스마스트리는 80피트의 높이로 미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키를 자랑한다. 이는 뉴욕을 대표하는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보다도 큰 것이다.

‘패뉴얼 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Faneuil Hall Tree Lighting Spectacular)은 11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35만 개의 LED 전구 점등식을 포함한 다양한 퍼포먼스가 열릴 예정이다.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보스톤 어린이 코러스, 보스톤 출신의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결성진출자인 손스 오브

세렌딕(Sons of Serendip), 보스톤 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공연, 블루맨 그룹(Blue Man Group)등이 참여하는 이날 이벤트는 WBZ-TV와 Channel 4, myTV38을 통해 당일 오후 8시부터 생방송으로 방영된다.

다음날인 20일부터는 트리에 점등된 35만 개의 LED 전구가 크리스마스 캐럴에 맞추어 반짝이는 ‘블링크(Blink)’ 쇼가 시작된다. 1월 1일까지 6주 동안 이어질 예정인 블링크쇼는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 3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패뉴얼 홀의 마켓플레이스 센터에 위치한 메인 트리와 사우스마켓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매시마다 노스마켓에서 시작되며, 각각 7분 동안 진행된다.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
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제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뉴잉글랜드 지역 유명 스키 리조트 4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뉴잉글랜드의 산들이 겨울을 맞이해 스키장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스톤매거진에서 선별한 뉴잉글랜드 지역 유명 스키 리조트 4곳을 소개한다. 각 리조트의 특색과 유명 트레일,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숙박시설, 먹거리, 그 외의 즐길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

킬링톤 리조트 (Killington Resort)
4763 Killington Rd., Killington, Vermont, killington.com.

가야 할 이유: 11월 26일과 27일, 알파인 스키 월드컵 이벤트를 유치한다. 여자 자이언트 슬라럼과 슬라럼 레이싱이 펼쳐질 예정이다.

유명 트레일: 900피트의 수직 드롭으로 유명한 라임(Rime)이 시즌 최초로 개방된다.

숙박: 온수 풀장을 끼고 있는 킬링톤 그랜드 리조트 호텔에서는 그린 마운틴이 내다보인다. (1박당 \$223부터)

먹거리: 작년 킬링톤 그랜드에 오픈한 프레스톤스(Preston's)에서는 로컬 치즈가 토핑된 햄버거나 훈제 연어가 올라간 BLT를 맛볼 수 있다.

그 외: 리조트에 새롭게 생긴 600피트 길이의 질라인 '스카이라이드' (Skyeride)를 타



고 하얀 눈이 덮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선데이 리버 리조트 (Sunday River Resort)
15 S. Ridge Rd., Newry, Maine, sundayriver.com.

가야 할 이유: 선데이 리버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눈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2000개가 넘는 스노우 건으로 만들어내는 눈발 덕분에 5월까지도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유명 트레일: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이라면 엑스칼리버(Excalibur)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이는 마후석 레인지의 풍경을 사진에 안 담고는 못 배길 것이다. 이 슬로프는 리조트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힌 곳이다.

숙박: 스키장과 맞닿아있는 조르단 호텔은 온수 욕조, 스팀룸, 사우나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1인 1박당 \$105부터)

먹거리: 리조트의 마운틴 룸에 구비된 20명 정원의 바에서 스키를 즐기 전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다.

그 외: 베델 근처의 젬(Gem)영화관은 인디 영화를 최초로 상영하는 평기한 곳이다.



지난 10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단장한 스프루스 픽 마을 전경 (이미지 출처 sprucepeak.com)

워터빌 밸리 리조트 (Waterville Valley Resort)
One Ski Area Rd., Waterville Valley, New Hampshire, waterville.com.

가야 할 이유: 10개의 트레일을 비롯, 새롭게 단장한 리조트가 이번 시즌 공개된다.

유명 트레일: 트루 그릿(True Grit)은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곳으로, 넓으면서도 가파른 곡두벽이 특징이다.

숙박: 타운 스퀘어 콘도미니엄 (Town Square Condominium)은 원베드부터 쓰리베드의 유닛을 제공한다. 리조트 내의 각종 가게, 레스토랑과의 인접점이 좋다. 1월과 2월의 토요일 저녁에는 불꽃놀이가 열린다. (1박당 \$179부터)

먹거리: 사슴 허리 고기 혹은 야생 멧돼지 미트볼과 같이 산속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요테 그릴(Coyote Grill)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코요테 그릴은 테쿰테 산 근처에 위치



하고 있다.

그 외: 큐리어스 조지 코디지 (Curious George Cottage)에 있는 마거릿 H.A. 레이 센터(Margret and H.A. Rey Center)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미술공예와 책 읽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스토우 마운틴 리조트 (Stowe Mountain Resort)
5781 Mountain Rd., Stowe, Vermont, stowe.com.

가야 할 이유: 야외 아이스 링크장, 와인 파빌리온, 달밤의 스노우 슈 투어가 있다. 스토우가 지난 10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단장한 8천만불의 스프루스 픽 마을(Spruce Peak Village)에는 유럽적 분위기가 가득하다.

유명 트레일: 해이라이드는 길고, 가파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경관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숙박: 스토우 마운틴 로지는 벽난로와 세탁 시설이 구비된 방을 제공한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파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1박당 \$259부터)

먹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치즈와 햄, 소시지, 사이다를 고메 마켓에서 사서 난로가 옆의 부엌에서 즐길 수 있다.

그 외: 사이다 스크립, 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스토우의 스파를 마음껏 누리보자.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 증상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위장, 소화불량, 장염
- ④ 만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 ⑤ 소화장애, 변비, 폐경기 증상 등
- ⑥ 골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관절염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 ⑧ 기타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에 듭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8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추세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우체국, 매사추세츠에서 500명 채용 계획

기존 직원 노령화와 은퇴로 공백 생겨 우체국 시작 급여는 시간당 16.06달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과 스마트폰이 일상적인 연락 수단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체국 서비스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락 수단이다. 미 우정국은 매사추세츠에서 우편 배달부와 우체국 근무 직원을 포함해 500명의 풀타임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우체국에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우체국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보스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견고, 또 걸어야 한다. 우체국에서 채용 중인 인원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의 우편 배달부다. 도시에서는 집들이 촘촘히 붙어 있기 때문에 트럭이 아닌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배달 업무를 해야 한다.

는 날씨와 상관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편물을 배달해야 한다.

시간당 16.06 달러의 급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일 수도 있다. 특히 아마존을 통해 배달되는 소포들은 때로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배달하기가 쉽지 않다.

우체국에서 36년간 일해온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 매니저 존 파

워스는 “이번 채용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가 채용했던 것과 비교해 가장 공격적이다”라며 “가장 큰 어려움은 128번 도로를 따라 있는 우체국들과 보스턴시에 있는 우체국 직원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경기 침체 이후로 우체국에서는 신규 채용이 없었다. 그러나 우체국 직원의 노령화로 인해 대규모 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레이터 보스턴의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우체국 직원의 1/3이 은퇴를 해도 되는 나이와 근속 연수를 채운 상태다.

jsi@bostonkorea.com



우체국 배달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굳은 날씨에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추수감사절 기간은 미국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기간 중 하나이다

추수감사절에 보스턴 교통 체증 예상 시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추수감사절 기간은 한국의 추석과 같이 타지에서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다. 오랜만에 모이는 오붓한 시간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통 체증이다.

추수감사절 기간은 미국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기간 중 하나로 꼽힌다. 만약 보스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전을 해서 간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구글에서 과거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의 교통량과 패턴을 분석해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때와 운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알려주었다.

출발하기 가장 좋은 때: 추수감사절 전 일요일 6시가 출발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그나마 일요일에 출발하더라도 오후

3시 무렵부터는 심각한 교통 체증이 시작된다.

출발하기 가장 안 좋은 때: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 수요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수요일에 출발을 해야 한다면 오전 7시 정도에 출발하는 것이 좋다. 오후 3시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돌아오기 가장 좋은 때: 보스턴으로 돌아오기 가장 좋은 날은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이다. 특히 오전 6시 정도가 도로 상황이 가장 좋고, 오후 4시에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하다.

돌아오기 가장 안 좋은 때: 추수감사절이 지난 토요일에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다. 그나마 오전 6시에 출발한다면 교통 혼잡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고, 오후 4시가 가장 막히는 시간이다.

jsi@bostonkorea.com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저가오농복,
서울설렁탕의 미션,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alBeefSoup.com

서울 or Seoul in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Seoul.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책,론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트럼프 당선 이후 대학가에서는...

학생들, 외국인 및 소수자 차별 염려
대학 당국 연방정부 연구비 축소 우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내 대학가는 불안하다. 학생은 학생들대로 추방과 소수자 및 외국인 차별을 염려하고 있고, 대학 당국은 연방정부 연구비 축소를 우려한다. 여대생들은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가 희석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에서는 11월 17일, 보스턴 인근의 대학 재학 중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중 고등 교육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대학 내 외국인, 무슬림, 흑인, 성 소수자로 분류되는 학생들은 트럼프의 인종차별 및 소수자 차별 입장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드 컬리지에 재학 중인 흑인계 미국인 엠마 케테쿠(Emma Keteku)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느껴야 할지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버드 컬리지 재학생은 이에 대해 “굉장히 분명한 어두운 분위기”라고 묘사했다.

보스턴 대학교의 신입생 레이철 에드워드(Rachel Edwards)는 “보스턴 대학교 내의 흑인 커뮤니티가 매우 겁에 질려있다”며 “앞으로의 4년이 어려워질 것 같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가능이다”라고 말했다.

애틀랜타 출신의 무슬림 학생 파르한 후드호이(Farhan Hoodbhoy)는 트럼프의 무슬림 비난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람에게 표를 던진 것이 무섭다고 말하며 “한 사람으로서, 미국인으로서, 무슬림 미국인으로서 내 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며 언젠가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턴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출신의 정치학도 징 웨(Jing Wen)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외국 친구들보다는 위협감을 덜 느낀다고 밝혔다. “중동이나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내 걱정이 덜할 것이다”라며 그녀 부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학업을 예정대로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학생들은 동료 학생 중에 누가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 중의 상당수는 자신의 지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고 출신의 하버드 신입생 나다 아티아(Nada Attia)는 “지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에 투표한 학생들이 누군지 파악해서 그들과 단절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고등 교육 관련 정책은 많은 외국학생들이 재학 중인 보스턴에



MIT 로비 7의 한 기둥에 학생들이 희망과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놓은 글들(적어놓은 글들)

서 그 어느지역보다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사추세츠 내 외국인 학생수는 미국 내에서 4번째로 총 6만 명에 달하며, 중국, 인도, 한국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들은 교환 교수제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전세계 연구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대학의 데이터(University Data)에 따르면 MIT 대학의 1/4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6%의 조교수, 43%의 학생들이 외국인이며, 이들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다. 대학 당국 또한 연구 지원금과 관련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노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가 ‘사기’라고 말하며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반면에 ISIS와 같은 테러집단과 싸우기 위해 사이버 보안 조사와 같은 국방부 관련 연구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스턴 내 많은 대학, 특히 MIT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T의 대기과학과 교수인 케리 에마누엘(Kerry Emanuel)은 최근 몇 년 동안 공화당은 이미 자신의 연구비용 지원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나이가 많은 과학자들은 일찍 은퇴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이 분야에의 커리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연구자들은 지원금을 덜 받게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연구소를 운영 중인 노스 이스턴대학의 시니어 부회장 마이클 아르미니(Michael Armini)는 “만약에 지구온난화가 사기라고 믿는다면, 지원금이 줄어들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르미니는 “트럼프는 공약을 통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상세한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토론과 연설문을 통해 조각 맞추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대학가의 불안한 분위기에 관해 설명했다.

sun@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1월 1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3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 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트럼프 수석 배넌 "실리콘 밸리에 아시아인 너무 많다"

백악관 입성 '올트라이트' 과거 발언 논란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지명된 스티브 배넌이 과거 "실리콘밸리에 아시아계 기술경영자가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매체 '브레이크바트'의 창립자인 배넌은 백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울트라이트'의 핵심으로 논란의대상이다.

16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배
 년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진행하는 라
 디오방송 '브레이트바스 뉴스 데일리
 '에서 게스트로 나온 트럼프 당시 공

화당 후보와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일자리를 가져가고 갈수록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대부분은 국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만약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스탠퍼드 같은 훌륭한 학교를 나왔다면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건 끔찍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배년을 향해 "신중해져야 한다. 재능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넌은 트럼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리콘밸리 최고경영자(CEO)의 3분의2 또는 4분의3이 남아시아 또는 아시아 출신"이라며 "국가는 경제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 아니냐"고 반박했다.

실제 2015년 5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기업에 소속된 전문인력 중 아시아 출신 또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27%를 이룬다. 관리자와 간부 직급을 구성하는 아시아계 인력은 각각 19%, 14%로 조사됐다.

배년이 직접적으로 이민자 비하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계가

많은 사회는 시민사회가 아니다'라는 전했다.

취지의 발언을 통해 백인 지상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더 버지'는

lchung@news1.kr



트럼프와 백악관 입성 '알트라이트' 무엇이길래 이 난리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올트-라이트(alt-right·대안우파)의 대표자가 45대 미국 대통령직의 키를 쥐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한
몫을 한 미국의 새로운 극우 운동
트-라이트(alternative right)가 백
악관 권력 중심에 올랐다. 이들의 숙
주격인 매체 '브레이브바트'의 창립
자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 수석 전략
가직에 임명되면서다.

이름 그대로 주류 보수의 '대안 (alternative)'이 되겠다며 새롭게 등장한 올트-라이트. 이들은 기존 백인우월주의 운동과 얼마나 다를까.

올트-라이트는 이전 백인우월주의 운동과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구리 이미지 '페페'를 적극 사용하고 젊은층의 활동 비중이 높다. 또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거부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옹호한다.

브레이트바트는 스스로 "인구(백인)를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도모한다"며 올트-라이트를 정의했다. 또 여성혐오자가 아니지만 "남성적 기준을 옹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특징을 제외하면 올트-라이트는 기존 백인우월주의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트-라이트는 인종주의 · 백인 우월주의 · 반이민을 적극 내세워 이를 주축으로 결집한다.

올트-라이트 운동에 좌장적인 배
년이 트럼프 캠프 최고경영자
(CEO)를 맡으면서 멕시코 국경 장
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무슬림
입국 금지 등 초강력 이민정책을 이
끄는 데 일조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
실이다.

매체 브레이트바트는 그간 '변별
자 유대인'이란 인종주의적 책을 발
간하고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이 이민 정책에 관대함을 나타내자

그를 거세게 공격하기도 했다.

올트-라이트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백인우월주의 싱크탱크 네셔널 폴리시 리차드 스펜서 대표도 대선 전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가 우리와 'R' 단어(Racist·인종주의)와 연관됐다고 타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종주의자임을 자처했다.

유럽발 난민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을 이민자에 책임을 돌리는 기류가 높아지면서 올트-라이트 운동은 더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올트-라이트 운동에 가입하라는 포스터가 목격돼 '캐나다 진출'도 머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세기부터 활동한 백인 우월주의단체 큐클럭스클랜(KKK)가 하얀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면 올트

-라이트는 스크린 속에 숨었을뿐 같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올트-라이트를 '대안'이란 용어를 붙여 부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무슬림 사회는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올트-라이트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무슬림 혐오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폴 갈로웨이 미국무슬림자문위원회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많은 (미국)무슬림은 그들의 삶이 가치 있다거나 환영받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울트-라이트 전문 매체 브레이트
바트는 배년의 수석전략가직이 결
정되자 연달아 배년을 옹호하는 기
사를 게재했다. yiw@news1.kr

골프 레슨

UNITED MASTER GOLF TEACHERS FEDERATION
 UNITED MASTER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매스틱 US 월드 링컨 프로

st.usgw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졸의 전통상 대어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100% 배부

문의 617.240.3131 Happydol@naver.com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섬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 935, 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美 연준의장 의회 출석 주목할 5가지 트럼프 언급할까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우 리시간 18일 밤 12시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미국 정책 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기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옐런 의장 증언을 앞두고 주목할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했다.

1. 12월 금리 인상 신호 나올까?

옐런 의장이 이날 '연준은 12월 금리 인상 경로 위에 있다'고 밝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지지할지에 세간의 눈과 귀가 집중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지난 FOMC 이후로도 계속 금리 인상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12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가 조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이달 2일 FOMC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미국 내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0월 신규 일자리는 크게 증가했다. 임금 증가세는 7년 만에 가장 가팔라졌다. 올 가을 소매판매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 美 대선 여파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은?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이달 FOMC에서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선거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많은 투자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증시는 연일 랠리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희망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국제 수익률 급등세 등 시장 반응에 대한 옐런 의장의 견해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3. 트럼프 효과?...예상보다 빨리 금리 올릴 수도

이날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재정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옐런 의장에게 질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감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연준은 어떤 법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연준 의장이 재정 부양책을 승인하는 듯한 신호를 보냈던 선례도 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연준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밝혀왔다. 그러나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예상보다 빨리 정책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4.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내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준은 커다란 정치적 압력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공화당은 연준의 운영방식을 바꾸고 의회의 회계 감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 역시 연준에 대한 비난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옐런 의장은 공화당의 주장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연준을 정치적 개입에 취약하게 만들어 결국 미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그간 옐런은 말해왔다.

5. 인플레이 기조에 대한 연준의 시각
최근 물가상승률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저금리 정책에 대해 옐런 의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통화완화책이 물가상승률을 위협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FOMC는 이달 성명서에서 올해 초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다소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FOMC 위원들은 또한 투자자들의 물가상승률 기대심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세의 위험에 대해 FOMC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옐런 의장의 고견도 예상된다.

hemingway@news1.kr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트럼프의 美 경제...레이저노믹스 "다운 점 vs 차이점"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모호한 경제 정책들로 인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대통령 트럼프' 하에서의 미국 경제의 모습을 쉽게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씨티그룹의 제레미 해일, 그레이엄 비숍, 아미르 아민 등의 애널리스트들로 이뤄진 투자 전략팀은 1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경제의 모습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레이건 정부 때의 '4가지 현상' 재현될 것

씨티의 전문가팀은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 나타났던 네 가지 현상이 '대통령 트럼프' 하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이 제시한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달러 강세다. 씨티는 재정 완화책과 채권 수익률 상승, 연방 준비제도의 매과적(통화 긴축 선택) 스탠스 등이 맞물려 향후 수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 재정 부양책이 실행되는 모습이 레이건 정부 때와 유사하다는 진단이다. 1980년과 1981~1982년에 더블딥 리세션(회복하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현상)이 연출됐다. 이러한 침체기에 재정 부양책이 실행됐고 정부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

세 번째는 채권 매도세다. 재정 완화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채권 매도 움직임이 확대됐다. 이에 더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이 진행됐다는 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를 연출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에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81년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며 주가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하고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주식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고 씨티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차이점도 존재

씨티 전문가들은 1980년대와 현재 상황에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재정 부양책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된 것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주가수익비율(PER) 6.5배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4.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씨티는 "언제나 그렇듯이 과거는 미래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50개주 중 44개주에서 승리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나 트럼프는 30개주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하며 "트럼프의 권력도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g@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랑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수 가능.
 주방기술자 파란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랑들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우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랑물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황달 소스	파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치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치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육 소스
떡볶이 소스	사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ous@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성곡 838-4 102동 파랑물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附錄 經濟學



수집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보기드문 천연물은 무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로 7분거리.
냉수계, 화강암 4.5개, 3개의 출입구, 현수하가이 높은 위치.



Newton 2 Fairly \$748,900
2기구 제1호 1호, 총 수납 약 50,000,
대형 주방, 화장, 욕조, 샤워, 욕조, 욕조



Newton \$1,303,000
2기구상부, 완수\$144,600, 대지신탁\$220만 R.
입찰으로 받아 와서 있음.
원주하기 물론 2000년 7월 31일, 보수원(매년)



Newton \$1,399,000
2014년 세일, 학교 학군, 수영장과 6057sq ft.
대지면적 16000 sq ft. 방 6개, 화장실 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850,000
2019년 세액, 봉차, 화물비 2,875,
주거 임대 2000sq ft, 대지 임대 4775 sq ft,
토목 1000 sq ft



Boston Fenway \$384,000
 땅 17개, 파킹장 17개, 루지 2500여 677sq ft,
 4000 sq ft 200 sq ft, 1st floor water(1000)
 Boston, Fenway 02122, U.S.A. 617.552.1111



Winchester \$1,360,000
2015년 제1회 매매로 받은 양도세 부담금 4.8%
주거임대 4000sq ft, 상업임대 17540sq ft.
매출: 100%, 손익비율 100%, 2015년 10월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국민 74% "朴대통령 사퇴 또는 탄핵"...책임론 확산

리얼미터... '과도내각 구성 후 즉각 사퇴' 43.5%로 가장 높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책임 방식을 묻은 결과 '과도 내각 구성 후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은 20.2%, '임기를 유지하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18.6%, '즉각 사퇴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야 한다'는 10.2%로 집계됐다. '기타/잘 모름'은 7.5%였다.

박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거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73.9%에 달

하는 셈이다.

'자진 사퇴 및 탄핵' 여론은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엔 42.3%였고, 지난 2일엔 55.3%, 9일엔 60.4%였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9월 조사 대비 13.5%포인트 증가한 73.9%로 70%대를 넘어서며 '자진 사퇴 및 탄핵'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5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스마트폰 앱·자동응답 혼용, 무선(85%)·유선전화(15%)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girin@news1.kr



朴대통령 지지율 9.9%, 부정 평가 85.9%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주중 조사상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11월 셋째주 주중 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11월 둘째주 주간 집계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9.9%로 집계됐다. 하락세가 7주째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오른 85.9%였다. 이는 취임 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감소한 4.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과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지지층과 이념 성향에서 지지율 한자릿수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감소한 30.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제외 모든 지역에서 선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지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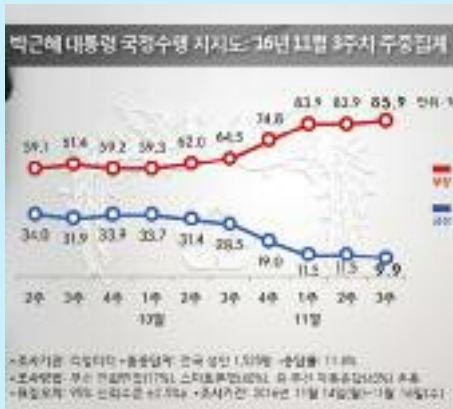
정의당은 1.5%포인트 오른 7.7% 지지율을 기록했다. 올해 7월 넷째주(7.8%)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7%대를 회복한 모습이다.

기타 정당은 0.1%포인트 내려간 5.3%, 무당층은 0.6%포인트 감소한 21.3%로 집계됐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20.0%,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8.4%,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11.9%, 이재명 성남시장 10.5%, 박원순 서울시장 6.0%, 손학규 전 의원 4.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25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스마트폰 앱·자동응답 혼용, 무선(85%)·유선전화(15%)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girin@news1.kr





bill chun MD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NOV. 18 - NOV. 24, 2016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EEF SHORT RIB STEW

Happy holiday! Why don't you have a delicious new idea on your thanksgiving table? Everyone will love it!

H마트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만찬 준비! 달달한 소스에 부드러운 육질로 누구나 좋아하는 갈비찜과 함께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WISHING YOU A GREAT THANKSGIVING FROM OUR FAMILY TO YOURS. 이번 추수감사절도 H마트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세요!



NATURE'S Tofu 자연담은 두부 Soft/Firm - Max. \$0.99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California Fuyu Persimmon 캘리포니아 단감 \$10.99	Purple Sweet Potato Hawaii 하와이산 보라색 고구마 \$1.79	Napa Cabbage 배추 \$14.99
Chestnut 밤 \$3.99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6.99	Lotus Root 연근 \$1.88	Washington Fuji Apple-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Gobo 우엉 \$1.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	Whole Chicken 통닭 \$1.49
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차돌박이 2mm \$9.99	Beef Bones 냉동 사골 \$1.29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LA) 양념 LA 갈비 \$10.9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5.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on Black Tiger Shrimp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8-11oz \$8.99	SHIKI Unagi Kabayaki 우なぎ 10oz/pkg \$8.99
Lobster Tail 랍스터 꼬리 \$22.99	Cooked Snow Crab 조식우 크랩 10oz \$10.99
Salted Yellow Croaker 자반 참조기 \$5.99	Blackfish 삼치 \$10.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ung Gi Medium Grain Rice 정기미 40 lbs. \$25.99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박스 4 Box x 10oz/Box \$9.99
DONGSHIM Mami Coffee Mix Original - 6.71oz x 10ea/Box \$12.99	KWANGCHUN Green Tea Sweetened Laver Original - 6.71oz x 10ea/Box \$9.99

H마트 MA 전매장 : 2016년 11월 20일까지

2016 K-FOOD FAIR

I ♥ K-Food

한국산 농식품이 좋다!
마이 리브 코리안 푸드!

UNTIL NOV. 20TH, 2016 AT ALL HMART MA STORE

파왕 농심 짜왕 \$5.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00ml \$14.99	PENGUN Canned Boiled Mackerel 펄귤 고등어/멸치 14oz \$2.5	한상 한상 찜닭 \$4.99	HAOREUM Dumpling 호우름 만두 \$4.99
SPAM HORMEL FOODS SPAM 2\$5	HOUSE HOUSE Vermont Curry 2\$5	네추럴 가든 NATURAL GARDEN 100% Natural Ginger Tea \$1.99	청정원 CHUNG JUNGONE Hangcho Vinegar Drink \$7.99	롯데 LOTTE Pepero \$3.99
정식용 버거용 두유 DR. CHUNG'S FOOD Vegemil Soy Milk \$9.99	바운티 BOUNTY Paper Towels \$14.99	25oz 25oz Plastic Lunch Box \$6.99	국물떡/다시떡 Filler Bag for Soup \$1.49	목욕목욕 MOKMOK Body Lotion \$1.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8pm, Fri - Sat 10am - 10pm

朴대통령 '퇴진불가' 버티기…탄핵정국 불가피

靑, 질서있는 퇴진·2선후퇴 '위헌' 입장
탄핵해도 6~8개월…검찰수사가 관건

(서울=뉴스1) 윤태형, 김영신 기자 = '100만 촛불시위'와 검찰조사 압박으로 '위기'에 놓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야권뿐 아니라 여권 비박(非박근혜)계가 반발, '탄핵 정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답한 후 퇴장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정 대변인이 다시 돌아와 "정국안정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지 하야나 퇴진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다른 관계자도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100만 촛불 집회' 이후 정치권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모든 해결 방안은 헌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퇴진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71조의 총리 권한대행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임한 후 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총리 추대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하에서 과도내각 구성 △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 취임 등으로 이어지는 '질서있는 퇴진론'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이 제기하는 권한대행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헌법 71조가 규정한 '사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모두를 내놓는 건 위헌'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며, 박 대통령이 외치까지 내려놓는 '2선 후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 구성권 이양도 헌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입장도 지난 4일 2차 답화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의 질책과 분노에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비난·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아파하고 있다"면서 "온갖 의혹이 사실로 단정, 매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상황인식을 종합해볼 때, '최순실 과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스스로 하야하거나 권한대행 이양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촛불 시위에 나타난 민심만으로는 대통령이 하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장기화 모드'로 진입함에 따라, 야권과 여권 친박계 일부가 주도하는 탄핵이 향후 정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불가피…탄핵 발의부터 현재 결정 6~8개월 '장기화'

헌법 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야권이 공조하면 탄핵안 발의는 가능한 상황.

그러나 탄핵안이 발의돼도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전체 171명이 모두 탄핵안 통과에 찬성하더라도, 재적 3분의2를 채우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9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및 중도성향의 비주류가 최대 60여명으로 집계된다. 그중 29명이 탄핵안 통과에 찬성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지만 비주류 진영 내에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탄핵을 발의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데 적어도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 등에 적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만으로 탄핵을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후 4개월간의 특별검사, 국정조사까지 이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국회에서 어렵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현재는 탄핵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촛불 민심'과 5% 지지율에서 나타난 국민정서로는 현재 결정과정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 탄핵 과정을 거치며 장기화할 경우 현재 결정 또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이뤄질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촛불을 든 시민들의 행렬이 청와대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경찰은 차벽으로 청와대 주변을 에워쌌다

벼랑끝 與 친박 반격 시작…비주류도 강공 대응

(서울=뉴스1) 객선미, 서송희, 김영신, 김정률 기자 = 벼랑끝으로 내몰렸던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야권과 비주류를 향해 반격을 시작했다.

반면 비주류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과 친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에 주력했던 친박 지도부는 17일 야권과 비주류를 향해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의 대통령 하야 촉구 공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여론몰이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향해 "초헌법적, 초법률적 권한은 문 전 대표, 추대표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며 "(야당의 퇴진 요구는) 한마디로 헌법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분을 여론 선동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문 전 대표를 향해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분명히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의 영수회담 취소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배후세력이 궁극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했던 좌파 시민단체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비박계를 향해서도 "비상시국회의는 분명히 해당행위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김무성 전

대표가 계신다는데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김 전 대표를 향해 "당이 위기에 빠졌는데 석고대죄를 해야 할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당에 돌을 던지고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청을 쟁취해야 할 도지사 출국을 하면서 중대결집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주류 핵심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향후 3차 답화에서 확실한 2선후퇴, 탈당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최종 입장이라고 볼 것"이라며 "그것이 미흡하다면 우리 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엘시티 철거 수사 지시에 대해선 "물타기라고 아직 생각지 않지만 지금 최순실 사태는 국민들

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치를 한단계 발전시켜가는 계기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2차 답화때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 검찰수사를 연기하고 피하고 대통령 변호인이 나와 당초 대통령 약속하고 다른 말을 해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루 빨리 검찰 수사를 받고 나중엔 특검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비주류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도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현재 사안을 놓고 할 수 있는 법은 탄핵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야권은)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탄핵을 주저하고 있다"며 "안보위기 속에 정말 필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국방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김 전 대표는 엘시티 수사 지시는 "관련 부정에 청와대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듯하다"면서도 "이 시점에 그걸 공개적으로 지시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동안 독자노선을 고수해온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엘시티와 관련 비리혐의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은 옳다"며 "다만 (야권 등에서) 반격모드로 가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청와대가) 잘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친박·비박 갈등에 대해 "걱정이다. 우리가 국가적 대의앞에서 분열하면 안된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 대의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분열, 분당은 있을 수 없다. 양쪽에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gsm@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e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 ft., 9.15 Acres 8 Bed
4.5 Bath
Asking **\$1,489,000**



Condo

28 Boylston Rd, Unit 1 Boston MA
동문동 2 Bed 1 Bath 870 sq. ft.
Condo 2 parking space
Asking **\$449,000**



Condo

10 Westfield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BR/1 Bath
renewed Condo, 2nd 2nd의 경우,
매일 T-12까지 개하는 23 미터 19
Asking **\$291,000, \$299,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ly perfect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700,000**

LISTINGS

1.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1,200,000	SOLD
2.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3.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4.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5.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6.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7.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8.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9.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0.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1.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2.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3.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4.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5.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6.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7.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8.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19.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20. Full Time 24/7	매일 24시간 운영, 24시간 운영	\$800,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Liquor
면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8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세무소영입용,
좋은 임대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턴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양장미끼 수로
넓은 자진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신보경: 508.361.6064

제이슨전: 617.642.5670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통과...향후 절차와 후보군은?

특검법상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후보군

김지형·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 檢 출신 강찬우·박영관도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이정우 기자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 3당 합의시 박원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은 제15호에 규정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 △대통령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민주당 및 국민의당 의뢰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양당이 합의한 2인 추천 △대통령은 추천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인 중 1인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다만, 특검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거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나 가졌던 자 등은 특검 후보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임명된 특별검사는 동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4명과 과건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업무과건 40명 등 자신을 포함해 105명에 달하는 '슈퍼급' 규모를 이끌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준비기간 20일, 본조사는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특검에 누가 될지에 쏠려 있다.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은 특검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능력

과 진정성을 고루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검은 검찰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만큼 검찰 출신보다 법원(판사) 출신 변호사를 좀 더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다. 야권 일각에선 "대법관 출신"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당직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은 아무래도 진정에 할 얘기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전제한 뒤 "판사든 검사든 이 사건의 중대함을 느끼고 국민적 의혹을 낱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법원 출신과 검사 출신을 각각 추천하게 되면 박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둘 다 법원 출신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선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도중 '호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시환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채 전 총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판사 출신으로는 구의역 사고 진상 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

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노영보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송호철 변호사도 거명된다. 같은 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검을 맡은 바 있어 꾸준히 특검 후보로 나온다.

검사 출신으로는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을 선택할 경우 강 전 지검장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검사 출신인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

을 빚고 사직했던 만큼 특검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재 구속된 차은택 CF 감독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해은 김종민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별적으로 후보군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검 추천에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야권의 한 의원은 "각 당별로 논의하고 있다.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언론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흘러나와 하루 이를 지켜보고 난 뒤 본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의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 '최순실 특검법·국조' 의결...정국 변화 계기될듯

'최순실게이트 정국' 돌입...최경환·김진태 등 반대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 등 민생법안도 처리

(서울=뉴스1) 이정우, 박승주 기자 = 20대 국회는 17일 일명 '최순실 특검법'과 '최순실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최순실 정국의 새로운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개원 후 두번째로 안건을 처리한 이날 본회의에서 관건은 단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규명을 위한 최순실 특검법의 처리 여부였다.

특검 법안은 여야 3당이 앞서 합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그대로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

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최순실·정유라 등의 이권개입 의혹 등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해 특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경환·김광림·김진태·박명재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일부는 반대에 눈길을 끌었다. 홍문종·김태흠·박대철·박맹우·김기선 의원 등은 기권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의 본회의 상정을 이끈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기권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표결하는 동안 자리를 비웠다.

최순실 국조 계획서 역시 이날 채택됐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의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됐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밖에 103개의 안건 및 법률안도 의결했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감사요구안은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소녀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재

제작' 수의계약과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경제활성화 및 우리 생활에 밀접한민생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다.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를 가능케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도 통과돼 과태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법안들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동승한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 방문 시 신고의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지에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컸던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기준에서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krusty@news1.kr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샤부샤부

무제한 BBQ 스페셜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리야키/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살/돼지 불고기/참치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계란/순두부찌개/단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삼구이/특대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비밀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돼지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키/불닭/오징어구이/순두부찌개
단장찌개/계란찜/공기밥/파전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0% OFF



무엇보다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오늘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가입니다.

MA Nail School yeil ✨ Korean Nail

(MA주 한인 운영)
네일 자격증 학원

> 저렴한 Nail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현재 학원내에서 진행되는 주말 미술 학교와의 연계로 통해 네일아트의 예술성예의
가능성을 넓히고 순수미술적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사: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WEEKEND ART CLASS

www.artwithk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인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토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all 810,586,3787(미술 수업 상담)



78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ona78@gmail.com

781.729.8868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와 진로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진정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靑 "23일쯤朴대통령 대면조사"…檢, 18일까지 최후통첩

22일 안종범·23일 정호성 구속만료…중복조사 지양
檢, 최·안·정 19일 일괄기소 강수…18일까지 연장

(서울=뉴스1) 윤태형, 조재현 기자 =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내주 23일쯤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18일까지는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만료일이 22일이고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의 구속만료일이 23일이어서 박 대통령이 추가로 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주 안에 검찰조사

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한 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횟수를 최소화해야 국정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방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 또한 회견에서 "대통령

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측은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최씨의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19일께 일괄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기소에 앞서 늦어도 18일께는 박 대통령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는) 마지노선을 넘어 18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과 내주 23일쯤 대통령 조사를 받겠다는 유 변호인 간의 조율 결과에 따

라 구체적인 조사일자와 방식이 정해질 전망이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CJ이미경 퇴진압박'의혹 조원동 檢출석 "참담한 심정"

포스코 권오준 회장 선임과정 개입 의혹도

(서울=뉴스1) 조재현, 박동해 기자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예정보다 10여분 빨리 검찰청사에 나온 조 전 수석은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사실을 인정하느냐' '퇴진 강요는 개인적 판단이냐' '포스코 회장 선임에 영향을 끼쳤느냐' 등의 질문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걱정도 많고 참담한 심정"이라고도 했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내 문화사업을 이끌어온 이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룹총수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 부회장은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놓고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에는 건강상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의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청와대 압력 때문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수석은 'VIP(대통령)의 뜻이냐'는 손 회장의 질문에 "그렇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CJ그룹은 계열사 CJ E&M이 운영하는 케이블채널 tvN에서 방영한 'SNL 코리아' 등 정치 풍자 프로그램과 CJ 엔터테인먼트가 투자·배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때문에 청와대에 '밈보였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또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정해졌다'고 통보하는 등 회장 선임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오준 회장은 실제 이듬해 1월 정준양 전 회장에 이어 회장에 내정됐고,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당시 발언의 취지 등이 부회장 사퇴와 관련된 정황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 인사 개입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오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퇴진압박 의혹 외에 CJ가 1조4000억원을 투자한 'K컬처밸리' 관련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한류 테마파크 'K컬처밸리'는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에 조성됐다. CJ가 이 자금을 출연한 시기가 공공로개도 이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여서 이 회장 특별사면 대가로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CJ에서 대관(對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모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박 대통령과 지난해 7월 개별면담을 한 손 회장을 불러 당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조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ho8401@news1.kr

검찰 "대통령조사 주말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서울=뉴스1) 조재현, 최은지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세운 검찰이 이번 주말(19~20일)에는 물리적으로 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오늘이 사실상 마감 시점으로 주말에는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법리 검토와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사 연기 요청을 한 상태다.

검찰은 여전히 대면조사 외에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20일 최씨를 기소하더라도 19일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며 주말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18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최씨를 우선 기소할 방침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안종범 전 청와

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한 후 박 대통령을 조사해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 "그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면서 "다만 나중에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100% 보장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최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상 일반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한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성실히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달리 검찰 조사를 미루는 것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솔직히 그런 말을 믿고 그 전제하에서 (조사)준비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내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 조사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cho84@news1.kr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파랑돌 Farandole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임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돌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I.T., Harva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COUPON
Buy One Get One Free
2016.11.18 - 11.24
3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주문을 올리시게 주문해 주세요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주문전화: **617.982.7118**
(배달식 골라 맛은)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지나 정 사원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크계좌
모바일 banking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투자 대출

울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East Boston Savings Bank®

181 Brighton Avenue
800.657.3272 ebsb.com



Member FDIC, Member NCUA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Massachusetts
Corporate HQ
Belmont
Concord
Easton
Hudson
Littleton
Malden
Norwood
Plymouth
Wareham
Westborough
Whitinsville
Yarmouth Port

Maine
Farmington
Portland
Saco
Sanford

Rhode Island
Newport

LEXINGTON/BOSTON OFFICE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NFL 정규시즌 11주차 앞둔 파워랭킹 TOP 4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6 NFL 정규 시즌이 어느덧 10 주차를 마치고 후반기 레이스에 접어들고 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보이는 가운데,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은 패트리어츠와 시호크스가 수퍼볼에서 다시 맞붙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치열한 후반기 레이스가 예고되는 가운데, NFL에서 가장 강한 4팀을 살펴보자.

4. Kansas City Chiefs – 7승 2패

쿼터백 알렉스 스미스의 패스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팀이 승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 치프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풋볼을 전진시킬 수 있고, 수비를 통해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 주 경기와 이전 대부분의 경기에서 비슷한 경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스미스와 리시버들은 실수를 범하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파워 러닝 플레이를 통해 결국 득점을 하고 수비가 확실하게 상대팀을 묶어 놓았다.

치프스의 수비는 한 마디로 놀랍다. 패스 수비와 러닝 수비에서 모두 상대팀을 압도하고 있다.

3. Oakland Raiders – 7승 2패

레이더스는 지난 주 바이 워크로 한

주간 경기를 쉬었다. 그러나 지난 9주 동안 레이더스는 AFC 최강 자리를 노려볼만한 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현재 순위 다툼이 가장 치열한 AFC 서부지구에서 레이더스는 치프스와 동률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브루코스가 반경기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올해 레이더스의 돌풍은 NFL에서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다. 1983년 수퍼볼 우승의 영광을 재현할 듯한 레이더스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다. 그리고 레이더스 돌풍의 중심에는 데릭 카라는 신예 스타 쿼터백이 있다.

2. Dallas Cowboys – 8승 1패

카우보이스는 8연승을 질주 중이다. 개막전에서 자이언츠에 패배한 것이 올해 현재 기록된 유일한 패배다.

카우보이스의 스타팅 쿼터백 토니 로모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우보이스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키엘 엘리엇과 닥 프리스캣, 루키 듀오의 뛰어난 활약 덕분이다. 엘리엇과 프리스캣은 올해 NFL 루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카우보이스가 연승을 거둘 수 있는 숨은 비결은 바로 오픈시브 라인이다. 오픈시브 라인이 확실하게 길



10월 기록만 놓고 본다면 현재 NFL 최고 쿼터백은 탐 브래디다

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 디펜시브 라인에 걸리지 않고 엘리엇이치고 나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쿼터백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프리스캣도 패스 러시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시즌이 후반으로 가면서 여러 MVP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 NFL의 진정한 MVP는 카우보이스의 오픈시브 라인이다.

1. New England Patriots – 7승 2패

미리 보는 수퍼볼 경기로 관심을 모았던 시호크스와 패트리어츠의 경기는 시호크스의 승리로 끝났다. 역전에 재역전이 반복되며 무려 7번이나 점수가 뒤집혔지만 결국 패트리어츠는 시호크스의 수비를 넘지 못했다.

2014 시즌 수퍼볼 패배를 복수하려는 듯 시호크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한 것처럼 보였다. 시호크스는 패트

리어츠의 수비와 공격에 시시각각으로 카운터를 날렸고, 패트리어츠의 대응은 이에 못 미쳤다.

비록 패트리어츠가 시호크스에 패배하며 시즌 2패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패트리어츠는 도박사들 사이에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힌다.

jsi@bostonkorea.com

보스턴 레드삭스 릭 포셀로, AL 사이영상…벌렌더 5점차로 제쳐

NL은 슈어저 수상…역대 6번째 양대리그 제패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릭 포셀로(보스턴 레드삭스)가 저스틴 벌렌더(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포셀로는 16일 미국 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2016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 8표, 2위표 18표, 3위표 2표, 4위표와 5위표를 각각 한 표씩 받아 총점 137점을 획득, 2위 벌렌더(132점)를 5점 차이로 제치고 개인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이저리그 사이영상 투표는 1위표 7점, 2위표 4점, 3위표 3점, 4위표 2점, 5위표 1점이 부여된다. 포셀로와 벌렌더의 격차가 1위표 한 표로 갈린 셈이다. 이는 4점차로 수상자가 정해졌던 지난 2012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격차였다. 벌렌더는 당시에도 데이비드 프라이스(당시 탬파베이 레이스)에 밀려 2위에 그친 바 있다.

포셀로는 1위표 8표로 14표의 벌렌더보다 적은 득표를 하고도 2위표 18표(벌렌더 2표)를 앞세워 총점에서 역전했다. 역대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를 더 많이 받고도 수상을

하지 못한 경우는 1998년 트레버 호프만, 2009년 아담 웨인라이트에 이어 올해 벌렌더가 세 번째 사례다.

포셀로는 올 시즌 33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223이닝을 소화하면서 22승4패 평균자책점 3.15, 189탈삼진 등을 기록했다. 벌렌더는 16승9패 평균자책점 3.04에 254탈삼진으로 승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포셀로에 앞섰지만 끝내 사이영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3위를 기록한 코리 클루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역시 98점으로 포셀로, 벌렌더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포셀로는 짐 론보그(1967), 로저 클레멘스(1986, 1987, 1991), 페드로 마르티네스(1999, 2000)에 이어 보스턴 팀 역사상 7번째 사이영상 수상자가 됐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가 1위표 25표, 2위표 3표, 3위표와 4위표를 한 표씩 받아 총점 192점을 획득, 102점의 존 레스터와 85점의 카일 헨드릭스(이상 시카고 컵스)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3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아

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받았던 슈어저는 이로써 게일로드 페리, 로저 클레멘스,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로이 할러데이에게 이어 역대 6번째로 양대리그 사이영상을 모두 받은 투수로 기록됐다.

슈어저는 역대 18번째로 2차례 이상 사이영상을 수상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워싱턴 팀 역사상으로는 몬트리올 엑스포스 시절이던 1997년 페드로 마르티네스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2014시즌을 마친 뒤 워싱턴과 7년 2억1000

만달러의 대형 FA 계약으로 팀을 옮긴 슈어저는 올 시즌 34경기에서 228⅓이닝을 소화하며 20승7패 평균자책점 2.9%에 284탈삼진 등의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다승과 탈삼진 부문은 리그 1위였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소속이던 2008년 빅리그에 데뷔한 슈어저는 디트로이트로 팀을 옮긴 지난 2010년부터 올 시즌까지 7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는 등 기복없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starburyny@news1.kr



보스턴 레드삭스 릭 포셀로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촌: A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oine Duvalier Parish of Boston Church

초대합니다

보스턴 한인성당
설립 40주년 기념 음악회

주제: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장소: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 성당
45 Ash St., Newton, MA 02466

때: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여 집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경이와 권능과 사랑의 미로입니다 (창 2:15)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30
송년/송년/초등/청소년부설회/성년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시 | LIFE 모임/주일 6시

담당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당목사: 박일종

주세우: 임성경 목사
유신복: 임영순 목사
주교: David Moon 전도사
영남/김도현 전도사

주세우: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ket에서 15분 거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신앙을 전하는
가정교회입니다 (www.sjchurch.com)

담당 목사: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Div.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2시
주일 학교	오전 2시
전도인 공부	오전 4시
목회 공부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3404
www.sj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송년회: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8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전 8:00(영-음)
우스터한인교회: 월 9:30~11: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6.796.4488
<http://www.wkmc.org>

담당목사: 김현터
8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8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간판 및 사인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로 모든 사랑을, 그 사랑으로 모든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진실, 온전, 진리, 사랑, 온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주일 속회모임
영년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3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oburn, MA 02472 Tel: 617.744.555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UMS는 비즈니스를 위한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가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결제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신용카드사 총책임자 **이선호**
781.266.7245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희앵커의
MBN 뉴스8
관심을 받아 관심을 끄는 뉴스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 **\$29.99** /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 /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월요금 별당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TBO 티보플레이

KBS, MBC, SBS, TVN, MBN, EBS, OCN, JTBC, XTV, etc. → **GO!**

매주 월요일 21:00 ~ 21:30 **뉴스8** (월요일 제외) 21:00 ~ 21:30
수요일 21:00 ~ 21:30 **뉴스8** (수요일 제외) 21:00 ~ 21:30
목요일 21:00 ~ 21:30 **뉴스8** (목요일 제외) 21:00 ~ 21:30
금요일 21:00 ~ 21:30 **뉴스8** (금요일 제외) 21:00 ~ 21:30
토요일 21:00 ~ 21:30 **뉴스8** (토요일 제외) 21:00 ~ 21:30
일요일 21:00 ~ 21:30 **뉴스8** (일요일 제외) 21:00 ~ 21:30

문의: 617-955-9112
LA: 213-999-7090
www.princessdiamonds.net

Friday, Saturday & Sunday
NOVEMBER 25, 26 & 27
from 9am to 8pm

3 DAYS ONLY

BLACK FRIDAY

SALE

30% TO 65% off ENTIRE store*
SOME EXCLUSIONS APPLY

FREE Gemstone
with any purchase*

We pay your sales tax!

PRINCESS DIAMONDS
FINE JEWELRY

34 Cambridge Street | Burlington MA 01803
(781) 362-4767 | www.princessdiamonds.net

\$500 OFF*
Any Remount or Redesign
of \$1,000 or more

\$100 OFF*
Any purchase of \$250 or more

\$20 OFF*
Any Jewelry or Watch Repair
of \$30 or more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시민권 신청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 추방제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 소재 한인식당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781-860-0171 (Kay)

세탁소 프레스 하실 분(파트/풀 타임)
카운터 보실 분(파트/풀 타임)
T. 617-955-7932

Care Cleaners에서 일할 분 구함

Chelmsford Store:

Store Worker(8시간에서 12시간)
프레스, 드라이버(12pm - 6pm)

Western Store:

카운터(Full time)

연락처: 603-401-0113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성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NAILS SALON FOR SALE

Nails Salon has been in business for over 15 years. In Stop Shop plaza (soon to be Target). Has 7 pedicure chairs and 7 tables. Still space for future expand. Located in Pawtucket, Rhode Island. If you're interested, please contact me at this number. Thank!

909.569.3777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www.masta.us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디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도연맹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98-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태대관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회	857-998-7043
재한한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디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디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산악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빌드그린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제일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렐교회	978-274-2369
엘허스트 한인장로교회	781-436-6495
엘허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디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온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97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웅)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엑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781-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리빙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름 보정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코치산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가슴축소술, 신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 위한 선택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케이뷰라인 성형외과' ... "축소술은 확대술에 비해 고난이도 수술, 자연스럽고 흉터 남지 않도록 신경써야"

가슴이 작아도 고민이지만 너무 커서 고민인 여성들도 있다. 가슴의 크기가 너무 크면 몸의 앞쪽에 실리는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증가할수록 척추 변형으로 악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슴 밀선이 큰 가슴에 의해 가려지면서 가슴의 피부가 다른 부위와 밀착되고, 마찰이 생겨 습진, 땀새 등의 피부과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활동 장애로 인한 비만 체형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대인관계의 위축과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

실제로 거대 유방증 여성의 30%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목디스크로 인해 손 저림 증상 등이 생기기도 한다.

지나치게 큰 가슴은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가슴축소술을 선택하는 분들은 가슴으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슴축소술은 비대한 가슴을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수술법으로 최소한의 절개로 가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슴 비대의 원인은 대체로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한 내분비계통 이상 또는 호르몬에 대한 유전 조직 반응 이상에 의해 가슴 비대가 생길 수 있으며, 유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춘기, 갱년기, 출산 후 호르몬 변화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 가슴축소 수술시 출혈에 대한 주의 필요 : 수술방법은 가슴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양쪽 대칭, 피부 두께, 처짐 정도, 유방 아래 주름 위치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유방암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 유방 촬영술을 통해 가슴 질환 유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술 시 주의사항으로 가슴축소술은 가슴조직을 직접적으로 상당한 크기를 절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리 기간에는 평소보다 출혈이 더 많고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생리기간을 피해 수술날짜를 잡는 것이 좋다.

또한 수술 전 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아스피린,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항응고제)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수술 2~4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하

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와 상의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거대 유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가슴축소술은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수술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별하여 선택해야 한다.

◎ 절개방법에 따른 4가지 수술법 : 가슴축소술은 절개 방법에 따라 유륜 절개법, 수직 절개법, T자형 절개법, 지방흡입 가슴축소술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유륜 절개법 : 유륜 주위를 절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수술법이다. 유륜 모양을 따라 절개하기 때문에 절개

선의 길이가 길지 않고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많은 양을 줄이기 어렵다. 처짐 정도가 심하지 않고 유방의 볼륨이 크지 않은 경우에 많이 적용한다.

△ 수직 절개법 : 유륜 아래에 I자형의 수직 절개선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가슴 라인이 예쁘게 교정되고 비교적 흉터가 적은 수술법이다. 가슴의 볼륨이 많은 경우 충분한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흉터가 굵게 남을 수도 있다.

△ T자형(“오” 자형) 절개법 : 가장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어서 유방조직을 많이 절제해야 하는 경우 시행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술법인 T자형 절개법은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어 교정 효과가 높다. 충분한 절개를 가하게 되므로, 흉터선을 다

루기 용이하다.

△ 지방 흡입 : 캐놀러를 이용하여 지방흡입을 통해 유방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법이다. 지방흡입 축소술은 절개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절개법에 비해 교정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가슴 축소만으로 이상적인 몸매 라인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특히 부유방이 있는 경우나, 비만한 분에서 시행하며, 단독으로도 하지만, 가슴축소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 가슴축소술은 성장이 완전히 끝난 후 수술해야 : 가슴축소술은 확대수술에 비하여 고난이도 수술이며, 환자가 원하는 만큼 가슴 사이즈를 축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와야 하며, 최소한의 흉터가 남도록 하기위해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 수술이다.

간혹, 지방흡입만을 시행해 가슴축소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의 피부조직과 유선조직은 그대로 둔 채 내부 지방만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후 가슴이 더욱 처지고 주글주글해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성장이 완전히 끝난 후 가슴축소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 유방증은 성장하는 기간 중에 키가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모든 성장이 끝난 후 축소술을 한다면 다시 거대유방증이 되지 않으나, 성장이 미쳐 끝나지 않았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커질 수 있어서 성장이 완전히 끝났는지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허리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직장/운동 사고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밀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정지 (20000~3500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 삼성생명PPO, 현대기아, 한국/유한/이화/교보생명/보합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보스턴 건스태드 카이로프랙틱

Tel. 617.277.0648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boetongonstead@gmail.com
Web: www.bostongonstead.com



'마음의 소리' 온라인 이어 인방극장도 접수?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마음의 소리'가 공개된 지 단 6일 만에 네이버 TV캐스트 전체 재생수 1천만 뷰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방송 중인 KBS2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극본 이병훈 권혜주 김연지/ 연출 하병훈)는 아직은 만화가 지망생인 조석(이광수 분)과 그 가족들의 엉뚱 발칙한 코믹 일상을 담은 드라마다.

지난 7일 첫 공개된 후폭풍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단 시간 내에 1천만 뷰 돌파를 가능케 한 '마음의 소리'의 인기 원동력 세 가지를 짚어봤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역대급 코믹 캐릭터들

'마음의 소리' 속에는 역대급 코믹 캐릭터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단순 즉흥이 생활인 만화가 조석과 엉뚱한 사고를 가진 형 조준(김대명 분), 백치미를 가진 철부지 아빠 조철왕(김병욱 분), 집안의 절대 권력자인 엄마 권정권(김미경 분), 그리고 청순한 외모를 가진 뜯기녀 애봉이(정소민 분)까지 누구 하나 평범하지 않은 다섯 캐릭터들이 매회 생각을 뛰어넘는 코믹한 행동들로 폭소를 유발하고 있는 것.

특히 웹툰에서 톡 튀어나온 듯한 '만찢 캐릭터'들의 실사화는 이광수, 정소민, 김대명, 김병욱, 김미경이라는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다섯 배우는 각각 조석, 애봉이, 조준, 조철왕, 권정권이라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에 완벽히 빙의해 몸을 사리지 않는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며 극을 보다 알차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마음의 소리'는 완벽히 맞아떨어진 캐스팅을 기반으로 돋보이는 캐릭터 플레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누리꾼들을 웃음 짓게 만들며, 이들 외에는 조석 가족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웃음과 로맨스의 절묘한 조화, 폭소유발 스토리

'마음의 소리'는 웃음과 로맨스가 절묘하게 조화된 유쾌한 웹드라마다. 통통 튀는 개성을 가진 조석과 그의 가족들이 펼치는 엉뚱하고 발칙한 가족 이야기가 연일 누리꾼들의 배꼽을 강타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애고자인 조석과 애봉이의 로맨스는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주 공개된 4번째 에피소드 '응답하라 2016'에서 범상치 않은 재회를 한 두 사람은 이후 에피소드에서 고교시절 추억을 나누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에 갇혀 사투를 벌이다 서로를 부둥켜안는 등 범상치 않은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 가운데 점차 짝 트여가는 조석과 애봉이의 로맨스가 설렘을 자극하는 한편, 연애와 감정 표현에 서툰 두 사람의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폭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석 가족이 펼치는 예측불가 에피소드와 조석, 애봉이의 코믹한 연애 스토리는 회차가 더해갈수록 한층 더 강력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더욱 큰 상승세를 예상케 한다.

예능감 넘치는 제작진의 센스 甲 연출력

'마음의 소리'는 예능감 넘치는 하병훈 PD의 연출력이 더해져 더욱 강렬한 웃음을 제공하고 있다. 역대급 코믹 캐릭터와 꿀잼 스토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하병훈 PD의 재기 넘치는 연출이 극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 주며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에피소드 '마음의 소리'에는 'SKIP' 버튼을 만들어 시청자들을 낚는다면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고 싶습니다'라는 멘트로 폭소를 유발했다. 더불어 '응답하라 2016'의 중간에는 '60초 후에 계속 됩니다'라는 멘트가 삽입됐으나 이광수, 정소민을 제외한 배경의 인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누리꾼들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하병훈 PD는 웹툰 자체가 가진 병맛 코드를 살리면서도 스토리를 놓치지 않는 드라마적 구성으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남은 회차들과 공중과 버전에서는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센스 넘치게 구현돼 보는 이들을 폭소케 만들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마음의 소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TV캐스트와 중국 소후닷컴에서 매주 월, 목요일 오전 6시 공개되고 있다. 이후 공중과 버전이 추가돼 내달 9일부터 밤 11시10분 방송될 예정이다.

nahee126@news1.kr

'도깨비' 공유X김고은, 설레는데 어찌쥬?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도깨비' 공유, 김고은의 캐나다 로케이션 현장이 공개됐다.

tvN 금토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 제작진은 15일 황홀한 낙엽 데이트를 펼친 캐나다 로케이션 현장 스틸컷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공유와 김고은이 울긋불긋한 가을빛이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낙엽 가득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으로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정갈한 블랙 슈트를 차려입은 공유와 교복 위에 후드티셔츠와 빨간 목도리를 두른 김고은이 나란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서정적이고 운치 있는 가을 풍경 속에서 한 편의 화보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캐나다에서의 촬영인

만큼 두 사람을 비롯해 스태프들 또한 한껏 고무됐던 상태. 두 사람은 수북이 쌓여있는 낙엽들 속에서 단풍잎을 주워 인증샷을 찍는 가하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낙엽 더미를 왔다갔다 거니는 등 캐나다에서의 촬영에 각별한 설렘을 드러냈다.

제작사 측은 "공유와 김고은은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라는 독특한 커플 케미를 자신들만의 매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한 장면 한 장면 최선을 다해 촬영하고 있는 공유와 김고은의 판타지 로코 시너지가 어떻게 발휘될지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도깨비'는 오는 12월2일 저녁 8시 첫 방송된다.

reddgreen35@news1.kr



'불야성' 이요원X진구X유이, 삼각 로맨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아슬한 워맨스부터 치명적 삼각 로맨스까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불야성'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MBC 새 월화드라마 '불야성'(연출 이재동, 극본 한지훈) 측은 16일 시선을 압도하는 메인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불야성'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부(富)의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 권력과 금력의 용광로 속에 뛰어들 세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냉

정과 열정의 화신이자 욕망의 결정체 서이경(이요원 분)과 그를 사랑한 박건우(진구 분) 그리고 흡수저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서이경이 되고픈 욕망덩어리 이세진(유이 분),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운명처럼 얽혀드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힘을 움켜쥐려는 욕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그려내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11월 7일 ~ 2016년 11월 13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7.2%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3.9%
3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20.2%
4	KBS1	KBS9시뉴스	16.5%
5	KBS2	해피선데이	14.3%
6	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13.1%
7	MBC	무한도전	12.3%
8	MBC	일밤2부(리얼입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2)	11.7%
9	KBS1	가요무대	11.5%
10	KBS1	인간극장	11.4%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2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4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5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6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7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8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9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10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TT	TWICE
02 11:11	태연
03 불장난	BLACKPINK
04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05 너무나너무너무	아이오아이
06 남아있어 (Feat. Crush)	로꼬
07 널 너무 사랑해서	MC 몽
08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09 내 옆에 그대인 걸	다비치
10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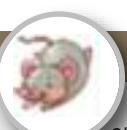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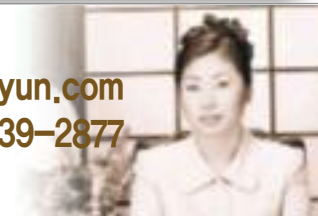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2			4	8				
9	6				2			5
		8	5					2
8			1		4	2	7	
				5				
	3	2	9		7			1
3					5	1		
7			6				5	8
				2	1			4

11월 13일 - 11월 19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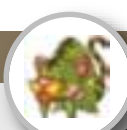
쥐띠 | 자기조절력이 꼭 필요한

●운수: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 앞에 일에만 신경을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전: 자기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애정: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헤어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소띠 |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운수:후회한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하세요. ●금전: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애정: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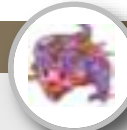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범띠 | 마침표를 찍어야

●운수: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전: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3일 주의.



토끼띠 |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운수:가벼운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금전: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너무 완벽한 것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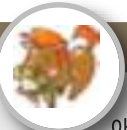
용띠 | 큰 행복감을 줄

●운수: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금전:직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애정: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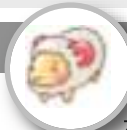
뱀띠 | 좋은 소식을

●운수:서로 보완할 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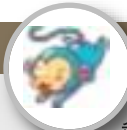
말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운수: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금전: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애정: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은 특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털어놓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양띠 |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

●운수: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금전: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음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애정: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0, 25일 길일. 24, 26일 주의.



원숭이띠 |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운수:힘들 때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금전: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애정: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6일 길일. 23,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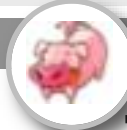
닭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운수: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전:당장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애정: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2,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개띠 | 그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운수: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전:그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정: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2일 길일. 21, 23일 주의.



돼지띠 |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운수: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에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애정: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해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6일 길일. 22, 23일 주의.

'주간아이돌' 블랙핑크, 도니코니와 함께

(서울=연합뉴스) 권수빈 기자 = 그룹 블랙핑크가 도니코니의 도움을 받아 첫 예능 신고식을 치러냈다.

블랙핑크는 16일 오후 6시10분 방송된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예능 첫 출연인 만큼 블랙핑크는 초반에는 긴장하면서 침묵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다. 정형돈과 데프콘은 쭈뼛거리는 블랙핑크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계속 장난을 치고 말을 걸었다. 왜 첫 예능으로 '주간아이돌'을 택했냐고 묻자 로제는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여기가 짱이어서요"라고 답했다.

리사는 사전 인터뷰에서 정형돈이 귀엽게 생겨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다. 정형돈은 그 말에 자신의 옆에 세우고 캡처할 기회를 줬다. 로제는 "정형돈 선배님께서 우리 아빠를 너무 닮으셨다. TV 보면서 느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집에 온 기분이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멤버들은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엉뚱한 면모를 조금씩 드러냈다. 아카펠라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그냥 이어 부르기처럼 해서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또 멤버들은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성대모사를 하면서 개인기에 도전했다.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제일 처음으로 틀려 정형돈에게 뽕망치를 맞은 제니는 "멤버들과 같이 느껴보고 싶다"며 다른 멤버가 틀릴 기회를 엿봤다. 제니는 또 다시 수상한 기미를 보였으나 음악이 체인지 되면서 로제가 틀렸다. 멤버들은 로제가 정형돈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다.

'처음 쓰는 프로필'에서 지수는 복치기와 별명 짓기가 특기라고 했으며 '춤신춤왕'이라고 불리는 만큼

약간은 어설피 춤 솜씨를 보여줬다. 제니는 세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반전 매력을 강조하면서 끼를 드러냈다. 로제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으며 박스에 갇힌 채 말하는 듯한 개인기를 선보였다. 리사는 메인댄서로서 비보잉까지 가능한 춤실력을 과시했다. 선물이 걸린 코너에서는 '봄바야' 2배속 댄스에 도전해 피자, 치킨 세트를 얻었다.

예능 첫 출연을 마치면서 로제는 "아빠와 함께 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멤버들은 "새로 나온 '불장난', '스테이'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ppbn@news1.kr



'무한도전' 멤버들 X 뮤지션 조선 역사 수업 몰입...열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에서 '역사X힙합 프로젝트-위대한 유산'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진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역사X힙합 프로젝트-위대한 유산' 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요즘 가장 사랑받는 음악장르인 힙합으로 우리 역사에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시작됐다. 개코, 도끼, 딘딘, 지코, 송민호, 비와 이까지 내로라하는 래퍼들이 합류했다.

'무한도전' 멤버들과 힙합 뮤지션들은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의 역사 수업을 통해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

야하는 이유와 반만년 동안 나라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긍지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설민석의 수업은 지난 방송에서 조선시대 세종대왕까지 공개됐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부터 시대별 역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무한도전' 멤버들과 힙합 뮤지션들은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열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역사X힙합 프로젝트-위대한 유산'은 오는 19일 오후 6시20분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심형탁 "내년 마흔인데 소속사서 연애금지령"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배우 심형탁이 연애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심형탁은 16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라스)에서 내년 마흔인데 연애금지령이 내

려진 것에 대해 말했다.

심형탁은 "우리 회사와 함께 한 지 10년이 됐다. 그전까지는 전혀 말이 없었는데 조금 되고 나니까 갑자기 금지령을 내렸다"고 연유를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하지 말라는 거다. 결혼하는 그날까지 연애금지령이 내려졌다"고 덧붙여 모두를 폭소케 했다.

ppbn@news1.kr



한 성 식 내과

이제는 보스톤에서도
한인 내과 전문의에게
맞춤형 진료를
받으세요

Office Hour
월-금요일, 8:30-5

한 성 식 내과 전문의
Sungelk Hahn, M.D.

6 Essex Center Drive Suite 304
Peabody, MA 01960

TEL : 978.854.6376

태양자동차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00490 • GD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11월 2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2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3	MBC	불어라 미풍아
4	MBC	좋은사람
5	SBS	사랑이 오네요
6	MBC	좋은사람
7	SBS	우리 갑순이
8	MBC	언제나 봄날
9	MBC	다시시작해
10	KBS	여자의 비밀

티보플레이 11월 2째주 신규 방송

1	SBS	낭만닥터 김사부
2	MBC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티보플레이 11월 2째주 최신 영화

1	걷기왕	심은경
---	-----	-----

첫방 '푸른바다의 전설' 전지현이 기대되는 이유

(서울=뉴스1스타) 황지혜 기자 = 방영 전부터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은 드라마가 또 있을까. 전지현이 출연한 SBS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이 벌써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SBS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은 멸종 직전인 지구상의 마지막 인어가 도시의 천재사기꾼을 만나 육지생활에 적응하며 벌이는 판타지 로맨스물. 이 작품은 전지현이 출산 후 첫 복귀작으로 선택한 '별에서 온 그대'를 집필했던 박지은 작가의 작품이다. '천송이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작가와 배우의 재결합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당연지사.

전지현은 14일 열렸던 제작발표회에서 "박지은 작가와 다시 호흡을 맞춰 천송이 이상의 캐릭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넘어야 할 벽이다. 연기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포부와 걱정을 동시에 드러냈다.

최근 드라마 시작 전부터 스틸 컷, 티저영상 등에서 청초한 인어로 등장하는 전지현의 모습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하늘하늘한 긴 생머리, 시원하게 뻗은 날씬한 몸매가 관전. 이번 티저영상과 스틸 컷에서 공개한 모습에서는 복숭아를 연상케하는 붉으면서도 하얀 겨울톤 피부가 눈에 띈다. 바다에서 사는 인어를 연기해야 하기에 메이크업 또한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살리고 색조 메이크업을 자제한 것 등으로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eauty@news1.kr



'걷기왕'에 쏟아지는 배우들의 찬사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들이 영화 '걷기왕'에 찬사를 보냈다. '걷기왕'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CGV 왕십리에서 VIP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VIP 시사회에는 심은경을 비롯해 박주희, 김새벽, 윤지원, 안승균, 김광규, 김정영, 이재진, 백승화 감독까지 '걷기왕'의 주역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내준 스타들과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심은경은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진심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재미있게 보시고 SNS에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다"며 진심어린 인사를 전했다.

시사회를 마친 뒤 기타리스트 조정치는 "영화의 메시지가 좋아서 보면서 찡한 부분이 많았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예원은 "인생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은 것 같다. 따뜻한 감동을 받고 돌아간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승은 "유쾌하고 힐링이 되는 영화인 것 같다.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즐겁게 보실 수 있으니 꼭 봐주시길 바란다", 박두식은 "신선한 청춘들의 이야기가 뜨겁게 다가왔고, 제 마음 속 열정까지 불을 지퍼준 것 같다"고 말했다.

uu84@news1.kr



보스톤군과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사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e 500
Boston, MA 02116

재외 동포 문학상 수필 당선작

제목: 생일, 마늘밭에서

최정우

애당초 시어머님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시리라 기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일은 마늘을 뽑으러 가야 한다"는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냉큼 "그럼 저희도 같이 가죠"라고 대꾸하자 나는 망연해졌다. 옆자리에 앉아 간장 계장을 발라먹던 딸아이가 결눈질로 힐끔 내 얼굴을 살폈다. 눈치코치 없는 아들 놈은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지 젓가락으로 열무 김치를 깨작거리고 있었다. 딸내미의 반응에 남편은 아차하는 얼굴로 날 바라보았지만 이미 그는 주워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은 뒤였다. 우리 가족은 내일, 나의 마흔 두번째 생일날에 땡벌 아래서 마늘을 캐게 될 판이었다. 아버님의 기대와 어머니의 정성을 듬뿍 받고 자란 충청도 육쪽 마늘을.

다음 날, 우리 가족은 귀와 목덜미를 내리덮는 가리개가 달린 챙 넓은 모자, 팔꿈치까지 오는 팔토시, 그리고 고무 장화로 단단히 무장하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의 셔츠와 통넓은 바지까지 빌려입은 내 모습은 나무랄 데 없는 영농 후계자로 보였다.

6월의 별은 벌써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허투루 낭비할 짬이 없었다. 아버님은 바다 건너 온 실속 없는 일꾼들을 재촉해 차에 실었다.

마늘밭은 시택에서 차를 타고 5분쯤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다. 남편 말로는 거기가 시택이 원래 살던 곳이라고 했다. 그 마을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시택은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봤자 애들 걸음으로도 30분도 채 안 걸릴 거리였다. 그런데도 남편은 마치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이라도 한 기억처럼 떠들썩하게 그 때 일을 말했다. 별일이군, 남편의 말을 듣고 나는 콧방귀를 꾸며 대꾸했다. 이래저래 뒤틀린 심사를 그렇게라도 내보여야 속이 좀 풀릴 듯하였다.

5년만의 한국 여행이었다. 그동안 딸아이는 이마에 여드름이 송송 맺힌 사춘기 소녀가 되었고, 응석받이 아들은 그럭저럭 소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본인은 한사코 부정하지만 남편의 이마는 그저 '넓다' 라고 형용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무엇으로도 세월을 지울 수 없는 중년의 아줌마가 되었다. 아이들은 자라갔고, 우리는 늙어갔다.

그렇게 세월은 도무지 공평치가 않았다. 깊이 패인 주름살마저 발고랑을 닦아가는 아버님과 7자로 꺾인 허리를 곧추세울 때마다 느린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에게 무정한 세월의 발걸음은 더욱 가파랐다. 짝이고 짝이는 바위처럼 두분의 육신은 닳아 없어지는 것들의 끈고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마늘밭까지 가는 동안 나는 두 분의 세월을 헤아리며 내 꼬인 심사를 토닥이려 애썼다. 하필 불의 성정을 가진 여자를 골랐으니 환란의 가시밭길은 당연히 남편의 몫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물처럼 덤덤한 남자를 택했으니 인내의 불가마를 건디는 수밖에 없었다. 삶에선 도무지 공짜가 없는 것 같았다.

자동차는 밭과 밭이 이어졌다 끊겼다를 반복하는 좁은 시골 길을 바둥바둥 달리다 문득 멈추었다. 고추밭, 옥수수밭, 들깨밭, 참외밭... 갖가지 작물들이 자그마한 자리를 오손도손 차지하고 있는 곳 어디쯤에 시택의 마늘밭이 있다고 했다.

차가 서자마자 아버님은 마늘 캐 연장들을 챙겨들고, 어머니는 목직해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발고랑으로 들어섰다. 할아버지 할머니 뒤를 따라 아이들은 줄랑줄랑 고추밭 두령을 걸 어갔다.

고추밭이 끝나는 곳에 네다섯평 남짓해 보이는 자그마한 마늘밭이 있었다. 올해는 마늘값이 아주 좋다며 함박 웃음을 지으시던 시아버님을 보고 마늘 농사로 한밑천 장만하시려나보다 짐작했던 나의 예상이 무안해지는 크기였다. 마늘값이 아무리 좋기로 그 작은 마늘밭에서 나올 마늘양이 얼마나 될지는 뻔했다. 게다가 서울과 대전 형님들, 고모댁에 나눠주고 집에서 쓸 마늘을 남겨놓고 나면 뭐 어디다 내놓고 팔 것도 없어 보였다. 나는 내심 안심이 되면서도 웬지 아쉬운 기분이 들어 애매모호한 눈빛으로 마늘밭을 바라보았다.

시아버님이 가져온 연장을 한쪽에 부려놓는 사이 어머니는 아이들과 남편을 데리고 마늘밭 너머 풀이 무성한 공터로 가셨다. 가만보니 그 무성한 풀 사이로 봉긋 솟은 봉분이 두개 보였다. 시집온 지 십여 년, 하지만 시택에서 머문 시간은 대략 보름이 될까말까한 나로서는 처음 보는 봉분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인사는 드려야지. 니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시다"

그렇게 말한 어머니는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서 쑥개떡이 담긴 보시기 하나와 소주 한 병, 잔 두개를 꺼내었다. 남편은 말없이 잔에다 소주를 따라 쑥개떡 옆에 얹전히 내려놓았다. 우리 가족은 그 앞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존재조차 몰랐던 분들의 산소 앞에서 다같이 머리를 숙였다.

아이들은 눈치껏 산소에 큰절을 드렸다. 귀찮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학교에 다니며 어설

프게라도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어서 반가운 기색이었다. 낮설고 초라한 산소 앞에서 마치 큰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 마냥 눈을 반짝이는 딸아이를 보니 마음 한 자락이 아득히 멀리 흘러갔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호사를 아이는 여태껏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이국땅에서 뿌리도 없이 아슬아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간신히 뿌리내린 것들의 절박함을, 아이도 언젠가 알게 될까. 지나간 먼 시간 속 아득한 핏줄의 근원을 향해 잠시 머리 숙이는 이 순간을, 아이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그리하여 문득 나는 그 자그마한 봉분 앞에서 한없이 간절해졌다. 아이들이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언젠가 그들에게도 마치 허공에 밭을 내딛는 것처럼 망망한 날이 찾아온다면, 이 작은 봉분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떠올리기를. 그렇게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을 떠올려주기를. 그 기억으로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 큰절을 올린 우리는 잠시 봉분을 뒤덮고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마늘밭으로 돌아갔다.

태어나서 처음 마늘밭에 서 보기는 지들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짓도 모르고, 아이들은 내게 마늘을 어떻게 캐느냐고 물었다. 물끄러미 서 있는 내 앞에서 남편은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삽으로 어떻게 마늘을 캐는지 보여주었다. 마늘에 상처를 내지 않으려면 마늘대에 너무 가깝지 않게 삽날을 꽂아야 한다고 몇번이나 강조하면서.

어머니와 아버님은 벌써 고랑 하나를 말고 앉아 마늘을 캐기 시작하였다. 아버님의 삽이 날렵하고도 경쾌하게 마늘알을 톱글올리면, 그 곁에 앉은 어머니는 마늘에 붙은 흙을 탈탈 털은 뒤 마늘알이 한쪽으로 향하도록 나란히 줄맞춰 놓았다. 평생을 함께 일해 오신 두분은 아버지가 쿵, 하면 어머니가 짹, 하는 식으로 경쾌한 리듬을 타고 움직였다.

나는 얼른 딸아이의 손을 끌고 그 옆 고랑으로 갔다. 그리고 짹막하고 다부진 손잡이가 달린 삽을 들어 땅속 깊숙이 찔러넣었다. 그리고 삽날을 비스듬히 누이며 손잡이를 힘껏 눌렀다. 끄, 소리가 절로 흘러나왔지만, 너무 깊이 박힌 삽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손잡이에 힘을 주어도 흙 한 줌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시아버지의 잔 손놀림 뒤엔 허다한 노동의 시간 속에서 체득된 빈틈없는 정확함이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오도가도 없는 헛삽질에 힘을 쓰는 동안,

옆 고랑에 앉은 남편은 보란 듯이 마늘알을 끌어올렸다. 아들 녀석은 좋아라 소리를 지르며 마늘대를 쥐고 흔들었다.

나와 딸아이는 번갈아 삽질을 하며 느리게 마늘을 캐나갔다. 돌이켜 채 한결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님은 벌써 고랑 하나를 끝내가고 계셨다. 모자 챙 밑으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딸아이의 보들보들한 손바닥은 그새 별장게 달아올라 있었다. 손바닥만한 밭이라 알보았던 기억은 맥없이 사라지고 앞에 남은 고랑의 끝이 한없이 멀게 보였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유월의 햇볕아래 우리 가족은 귀한 육쪽 마늘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며 마늘을 캐다. 땅속에서 추운 겨울을 나며 단단히 여문 마늘은 딸아이의 손 안에 꼭 찰만큼 작았지만 야무지게 제몫을 그러안고 있었다.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올리듯 공들여 끌어올린 마늘에 상처라도 나 있으면 나와 딸아이는 밭을 뚱뚱 굴렀다.

마늘밭에서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그 어느 곳에서보다 천천히 흘러갔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만나질만에 마늘밭에서 철수해야 했다. 점심을 먹고 난 어머니는 차마 아이들이 안쓰러워 볼수 없다시며 우리를 쫓아냈다.

가까운 시내에 나가 바람을 쐬고 오후 늦게 시택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 마당과 안뜰 가득히 마늘이 널어져 있고, 집안엔 온통 깔깔한 마늘 냄새가 스며 있었다. 아버님은 마늘을 뽑은 자리를 새로 일구 콩 심을 준비를 하신다며 해가 다 지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저녁 뉴스에선 장마전선이 제주도까지 올라왔다고 알렸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어여쁜 기상캐스터는 다음 주엔 중부 지방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할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장마가 오기 전에 마늘을 다 캐서 널었으니 다행이라며 우리를 보고 웃으셨다.

그날 밤, 나는 기어코 한살을 더 먹었다. 세월은 결코 부질없이 않았다.

우리가 견딘 시간만큼 우리는 단단해져 갔다. 낡고 닳아가는 것들 안에는 묵묵히 견고해져 가는 소망이 있었다. 소망이 견고해져 가는 까닭은 종내는 닳아 없어질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끝 후에도 삶이 계속됨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 소망은 내가 사라져간 자리에 여전히 남을 누군가를 향한 것이기에 더욱 간절하였다.

마흔 두 해 살이만큼의 단단함으로, 나는 그소망을 힘껏 끌어안았다.

수상소감

고국을 떠난지 10년이 넘고부터 나는 더이상 떠나는 시간을 셈하지 않게 되었다. 재미교포,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나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새삼스럽기는 했지만, 한동안 그 단어가 주었던 거북스런 느낌은 사라졌다. 따지기 좋아하고 까탈스러웠던 나는 그 시간동안 뭉글뭉글 유순해진 듯도 했고, 덤덤하게 피치르는 듯도 했다.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한점 의혹도 없다는 불혹의 나이에 이르렀으니, 다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순리인 듯도 싶었다. 어쩌다 바라보는 고국은 낮설었다. 내가 떠나는 고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빠르고 현란하게 변해가는 고국의 모습 속에 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국은 저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져가는 무엇이었다. 나와는 당최 상관이 없는.

재작년, 고국에 다녀왔다. 새로운 고국의 모습보다 더 충격스러웠던 것은 아무곳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들려오는 모국어였다. 그 모

국어의 홍수 속에서, 나는 문득 온몸이 얼얼해질 때까지 소나기를 맞고서 있었던 어느 여름 한낮을 기억했다. 그 여름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이름들과 하릴없이 앓아내야 했던 신열을 기억했다.

바다를 건너 내게 고국의 하늘은 또다시 저 너머에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닿을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절망 대신 간절함을 노래하기로 한다. 고국과 나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를 이어줄 단 하나의 고리, 뒷방 늙은이를

대하듯 홀대하던 내 모국어를 꺼내 먼지를 털고 살그머니 쓰다듬어 본다. 내 손이 거칠어진 만큼 나의 모국어도 성글고 듬성해졌다. 그렇게 낡고 허름해진 내 모국어를 꺼내 오랫동안 들여다보다 문득 깨닫는다.'나'와 '너'는 참으로 비슷하게 생겼구나. '나'와 '너'는 마주보고 있구나.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 둘이 서로 마주 보며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말하고 있구나. 도무지 하나일 수 없는 두 존재를 가르는 것이 달랑 모음

하나 차이라는 것이 신기하고 다행스럽다. 그리하여 '나'는 또 이렇게 '너'를 바라보며 해묵은 꿈을 꾸는 것 이리라.

다시 읽어보니 영성하고 모가 많은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뽑아주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보스톤에서
최정우

신영의 **세상 스케치**

57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람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굴비꾸러미'처럼 늘어나는 정치 경제 죄인과 죄목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11.12 광화문 100만 집회 때 불린 아리랑 목동의 개사 '하야가'를 들어보았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한국방문 중 아는 지인과 함께 점심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하게 되었다. 광화문 100만 집회에 참석하고 왔다는 지인의 얘기는 들으며 TV로 시청하던 것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가만히 지금의 사태를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일이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오긴 나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 정도까지 왔을까.

〈최순실 게이트〉를 시작으로 최순실 씨는 지난달 31일 체포돼 16일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 기소를 앞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량 걱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TV 뉴스 중간중간에 최씨의 모습이 지나는데 측근 실세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다. 개인의 과한 욕심이 부른 결과이리라. 지금의 결과는 분명한 원인으로부터 출발했던 당연한 일이었음을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국민들의 끓는 분노는 시원히 풀리지 않는다. 너무도 기가 막힌 노릇에 한숨마저 숨구멍을 찾지 못함이다.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인사들과 비선실세 의혹을 받았던 '문고리 3인방' 역시도 여전히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죄목들 모두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리라 믿었던 것일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감추고 덮으면 그만일 것 같았던 그 엄청난 사건들이 국민들의 화를 불러일으켰으며 더욱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리분별 없이 한 개인에게 내어 준 어리석은 개인적인 감정과 친분 노출로 국민들의 분노를 더 들끓게 한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으며 더욱이 이해될 수 없음이 안타깝다.

검찰은 이번 주말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검찰은 올해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2월 17일 청와대 무역투

자진흥회의 때 (최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소개하는 서류를 받았다고 한다. VIP 관심사안이니 광고를 챙겨 주라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말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말 '굴비꾸러미'의 끊임없는 연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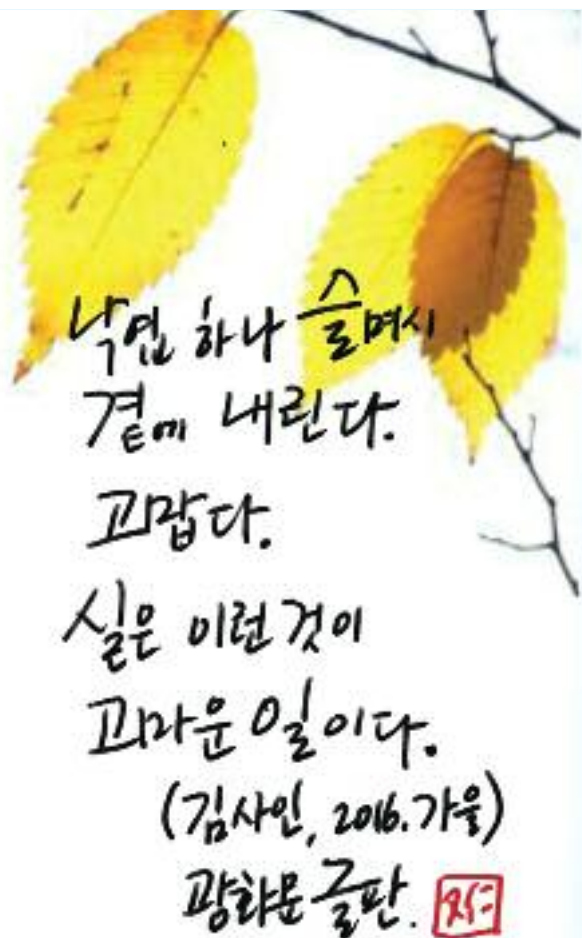
이후 최씨가 플레이그라운드 공금을 해외로 빼돌린 단서(횡령 혐의)도 확보했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차에 압력을 가해 딸 정유라(20·해외 체류 중)씨의 초등학교·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에 9억원가량의 일감을 준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음의 연속이다. 이외에 검찰은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수첩에서 박 대통령 개입 흔적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최씨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를 지켜보는 모두는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분간이 어려운 시점이다.

한 개인을 보더라도 어떤 일에 있어 결단이 없으면 기다림에 지쳐 실망하고 뒤돌아서서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던가. 하물며 한

기업의 총수도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해놓고 내 책임이 아닌 양 시간 늘리기에 연연해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고 화가 치미는 일 아니던가. 무엇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국민들이 그나마 동정의 한 표라도 던지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시간을 체크할 여유가 없다. 초침 바늘에 시간을 조이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사죄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정경유착(政經癒着) 그리 낯설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다. 하지만 이 익숙함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암담함에 울부짖는 이들이 바로 광화문 100만 집회에 나선 시민들이고 지금 현실에 처한 국민들이다. 이 처절한 현실에 고심하고 깊은 상처에 아파하고 찢긴 생채기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현 정부는 어떻게 그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 고통을 치료해 줄 것인가. 진정 무엇이 국민들에 대한 최우선의 선택이고 책임인지 묻고 싶다. 잠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의 굴비가 꾸러미에 엮이는 이 현실에 가슴 아프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아름다운 실패



아주 어릴 적이다. 신문을 보고 계시던 선친이 내게 물으셨다. 이 한자가 무엇이야? 수택동(手澤東). 내 대답에 선친은 빙긋이 웃으셨다. 그리고 말씀했다. 수택동(手澤東)이 아닌, 모택동(毛澤東)이다. 수수와 모트는 글자 모습이 비슷한데 다르다. 어린 내 눈에는 그게 그거였다. (내게는 아직도 모택동은 모택동이고, 등소평(鄧小平)은 등소평이다. 마오쩌둥이 아니며, 덩샤오핑이 아닌 거다. 옛날에 살고 있는데, 원어로 발음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공철과삼(公切과삼) 七過三. 등소평이 모택동을 평가할 적에 했던 말이

다. 잘한 일이 칠할이고, 과실은 삼할이란 말이다. 그저 하기 좋은 말이고, 모택동이 등소평에게는 우상이 필요했기 때문일 게다. 숫자에 과학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수량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과가 삼할인데, 모택동 덕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아름다울 수는 없다.

온몸으로 /관절을 푸는 가을
낙엽 한 잎
한해를 저물게 하고 있다.

양상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름다운 실패.
(권성훈, 아름다운 실패)

1984년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등소평이 참석했다. 북경대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수막은 영성했는데, 글의 내용은 친근했다. 소평니호(小平您好). 내 방식으로

번역한다. '소평영감, 안녕?' . 천진스럽고, 정감이 가는 애교이다. 몇년후 천안문 유혈사태가 터졌다. 중국군의 발포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이것도 아름다운 실패인가? 당시 등소평 영감이 주석(主席)이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의 대통령은 아직 임기중인데, 글쎄, 공철과삼이라 할 것인가. 공삼과철라 할까. 임기가 끝나고 한참을 더 기다려야 정당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여전히 정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단지 정성적 평가일 것이다. 중국엔 모택동도 주은래도 등소평도 모두 존경을 받는 모양이다. 모택동 사진이 천안문 앞에 높고 커다랗게 걸려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끝났다. 헛것을 보고 참으로 오해하는 건 아니기를 바란다. 선택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다. 당선된 미국 대통령은 공(功)만 가득하길 기원한다. 아름다운 성공을 위하여.

너희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 23:11)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라존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6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mail.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0. 새 길을 찾아서 (4)

인디언의 날(Heritage Day) 제정
거의 100년 전부터 인디언 기념일 또는 기념 기간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실제로 주 별로 적절한 날을 택하여 나름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90년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11월 한 달을 ‘인디언 유산의 달(National American Indian Heritage Month)’로 지정하여 이후 매년 이를 지켜오고 있다. 2008년에는 의회가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다음날을 ‘인디언 유산 기념일(National American Indian Heritage Day)’로 지정하고 이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성공회, 발견의 원칙(doctrine of discovery) 부인

미국성공회(Episcopal Church)는 2009년 7월 8일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Anaheim)에서 개최된 제76차 총회에서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발견의 원칙을 반박하는 결의안(Repudiate the Doctrine of Discovery)’을 채택했다. 성공회 측은 이 결의안이 가히 인디언의 인권회복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미국 정부로 하여금 UN원주민인권선언에 서명하도록 만드는 압력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19세기 중 인디언의 권리를 부정했던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연방의회가 인디언 나라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릇된 가정을 바로 잡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결의안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주장하였다. 성공회의 이번 결의는 ‘발견의 원칙’에 대하여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소위 ‘발견의 원칙’은 15세기말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시절에 로마교회의 교황과 유럽 내 왕국의 군주들이 발표한 칙령에 근거하여 비 기독교인들의 땅은 먼저 발견한 기독교 국가가 주인이 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고 자원을 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미대륙 원주민에 대한 박해의 국제법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 발견의 원칙은 예수의 복음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권을 부여받았다는 믿음에도 어긋난다고 이 결의안은 정면으로 비난하였다.

발견의 원칙(Doctrine of Discovery)

교황 니콜라스5세(Pope Nicholas V)는 1455년 일찍이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의 왕 아폰소5세(Afonso V)의 요청에 따라 포르투갈이 발견한 모로코의 케이프 보자도르(Cape Bojador) 이남의 아프리카 땅은 모두 포르투갈의 소유로 인정하는 칙령(papal bull Romanus Pontifex)을 선포하였다. 포르투갈이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해 나가자 스페인은 앞서가는 포르투갈을 단숨에 따

라잡기 위한 큰 도박을 벌였다. 스페인은 콜럼버스를 통하여 대서양을 가로질러 곧장 인도로 가는 모험적 항해를 실행에 옮겨 1492년 10월 12일에 성공을 거두었다.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 여왕(King Ferdinand and Queen Isabella)은 스페인 출신 알렉산더 6세 교황에게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을 스페인 영토로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교황은 1493년 5월 4일 칙령(Inter Caetera)을 발표하여 서경 38도선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스페인 영토로 또 그 동쪽은 포르투갈의 땅이라고 선언하였다. 포르투갈은 이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스페인과 협상을 벌여 1494년 6월 7일 토르데시야(Tordesillas)조약 체결을 통하여 기준선을 서경 46도선으로 조정하였다. 이 기준으로 인하여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고 나머지 모든 중남미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뒤늦게 대서양 항해시대에 뛰어든 영국의 경우에는 교황의 칙령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인 원칙을 내세웠다. 영국은 로마 가톨릭과 대립각을 세워 오다가 급기야는 1534년 헨리 8세 왕은 영국 교회를 로마교회로부터 독립시키고 본인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에 올랐다. 따라서 영국은 절대적 권능의 원천을 로마교황이 아닌 영국의 왕에서 찾았다. 영국식 발견의 원칙은 국왕의 특허장이나 위임장을 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 새로운 땅을 찾게 되면 영국령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교황이든 영

국 왕이든 그 절대적인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설득력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편무사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나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왜곡된 목적에 오용되는 경우에는 일찍이 스피노자가 말하였듯이 하나님의 진리 또한 왜곡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이 황당한 왜곡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미대륙의 원주민과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인류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가?

1823년에 있었던 ‘존슨 대 맥킨토쉬 사건(Johnson v. M'Intosh)’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발견의 원리를 인용하여 인디언들은 땅을 점유만 하고 있을 뿐이며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땅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팔지 못하며 영국 국왕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승계 받은 미국 정부만이 원주민 토지거래의 매매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두고두고 원주민의 땅과 재산을 가로채는 데에 법적인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비록 인디언이 조약체결을 통하여 땅을 미국 정부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땅을 넘겨주더라도, 유일한 땅 매수자인 미국정부로부터 제 값을 받아낼 리가 없다. 당연히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테니 실질적으로는 강탈과 오십백백보인 셈이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54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국시대의 유명한 책사나 모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아 편찬한 ‘전국책戰國策’ 가운데서 위나라에 관한 위책魏策에 나온다.

간추린 내용을 보면, (어느날 위나라의 안리왕과 함께 낚시를 한던 용양군이 고기 십여마리를 낚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무슨일이냐고 물으니, 용양군이 “제가 낚은 고기가 꼭 저를 닮은 듯해서 그만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제 무슨 말인가 하고 왕이 재차 물으니, “제가 처음 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 기쁜 마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고기들을 잡자, 그만 앞서 잡은 고기를 아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잘 생기지도 않은 저 같은 이가 총애를 입어 임금님 잡자리를 돌볼 수 있었습니단만, 앞으로 천하의 미인들이 줄을 이어 모이면 저는 낚시에 걸린 저 물고기처럼 음식으로 요리될 날만 기다리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그런 생각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위의 용양이 여자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그는 분명 남자였다. 그리고 안리왕 역시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 이 이야기로 비롯하여 어떤 남자를 용양군(또는 용양신)이라고 하면 그가 곧 남자를 위해 성적으로 봉사하는 인물이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쓰이게 된 것이다.

법흥왕과 박영실 그리고 구리지와 설성 등을 대표적으로 화랑세기에는 남색 냄새를 풍기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의 남색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모두 양성애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부인 등 많은 여인들이 주위에 있었다. 그렇지 않고 신하(또는 심복)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충신 이상의 사사로운 업무의 처리 담당했던 대리인이었기에 상징적으로 주어진 명칭으로도 볼 수 있다. 동성애나 양성애를 ‘선택’으로 보는 보수측과 ‘천성’이라고 보는 진보측으로 나누어져서 대립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을 필두로 하여 사회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수용과 인정으로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속에서도 낯설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동성애 관계이다. 대표적인 남자로는 신라 36대 해공왕, 고려 7대왕 목종과 31대 공민왕이며, 여자는 세종대왕의 며느리 순빈 봉씨(187)이다.

187) 순빈봉씨는 조선의 제 5대왕 문종이 세자 시절의 두 번째 빈이다. 문종은 여러면에서 대단히 불행한 왕이었다. 세종대왕의 장자로 태어나서 왕위에 올랐지만 ‘처복妻福’은 없었다. 문종, 이향李珣은 8세에 세자에 책봉되었고 일찍 결혼하였다. 첫 번째 부인 휘빈 김씨

는 문종의 사랑을 얻으려고 온갖 잡술을 행하다가 발각되어 폐위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순빈봉씨는 과음과 폭력적 기질 및 동성애 문제로 폐위되었다. 폐위 후 친정 아버지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봉씨는 나인 소쌍과 동성애를 나누었으며, 소쌍이 단지(승휘 권씨의 나인)와 동성애로 놀아나는 것을 투기하여 또 다른 나인 석가이를 시켜서 미행/궤방하기도 하였다. 결국 모든것은 발각되었고, 세종대왕은 수치와 진노를 참으며 며느리를 유도질문하여 모든걸 밝히고 폐위하였다. 세 번째 아내는 후궁 중의 한 명인 승휘 권씨를 맞이하였다. 그녀는 1441년 단종을 낳은 지 3일만에 산고로 인하여 죽었다. 나중에 현덕왕후로 추승되었다. 그 후 문종은 정식으로 빈이나 비를 맞이하지 않았다. 많은 후궁들 가운데 몇명으로 부터 후사가 있었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순비봉씨 사건의 전말은 세종실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다. 세종18년, 1436년).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이번에는 사다함의 아버지 구리지와 그의 용양신 설성에 관하여 좀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화랑세기에서는 단 세 차례 용양군 또는 용양신이란 용어가 등장한다(2세 풍월주 미진부전에 법흥왕과 박영실의 관계, 5세 풍월주 사다함전에 그의 아버지 구리지와 설성의 관계, 그리고 7세 풍월주 설화랑전에 같은 사람들인 구리지와 설성의 관계 - 세 군데 나오지만 법흥왕과 박영실 그리고 구리지와 설성의 이야기다. 또한 여러곳에서 남색을 연상케하는 관계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은 없다).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충분히 남색을 상상하게 한다. 하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심복이나 대리인 정도로도 쓰이고 있다는 견해도 많이 있다.

그럼 용양이란 무엇(누구)인가?

용양은 춘추전국시대의 7웅 중의 하나인 위魏나라 안리왕의 총신으로서 총애의 원천은 바로 남색이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용양군 또는 용양신은 남색으로 주인이나 상관을 만드는 인물의 대명사로 쓰여 왔다. 이 용양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 전한시대의 학자인 유향이 전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ING
PLASTIC SURGERY

코수술, 코재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아이앤지성형외과

- 1:1 개인 맞춤 시스템 —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체계적인 전과까지 맞춤서비스 제공
- 전문의 직접 진료 시스템 —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경과관리까지 전문의가 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직접 진료 시스템 진료
-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 모든 수술 전 과정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최상의 결과를 위한 안전한 관리 시스템 진료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리와 세심한 관리로 빠른 회복과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공
- 끊임없는 교육 연구 시스템 — 선진적인 연구 활동 및 전문적인 학습활동으로 세계 최강의 성형 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

아이앤지 휴람이벤트

- ☑ 이마 실리프팅 180만원 → **100**만원
- ☑ V라인 턱선 실리프팅 150만원 → **70**만원
- ☑ 아이앤지 코성형 250만원 / 아이앤지 코재수술 350만원



김자수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 성형외과 전문의
-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 대한 비강 내비경 학회 정회원
- 한국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 한국 비강 내비경 학회 정회원
- 대한 비강 내비경 학회 정회원
- 대한 비강 내비경 학회 정회원
- 대한 비강 내비경 학회 정회원



리본 부티케디얼그룹
RIBON BUTIQUE DIAL GROUP

성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쌍꺼풀
매몰

132만원

99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22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250만원



최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84-8728)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tvN Since 2008
2008년부터 전 세계인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인
티보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는 동시·동시·동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권의 한국방송 및 위성영화
내 맘대로 즐기는 합법 IPTV **TBO**
티보플레이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하앵커의
MBN 뉴스8
진심을 담아 진실을 전하는 뉴스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월~~ → **\$29.99/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달요금 빌링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TBO PLAY
티보플레이

KBS SBS MBC EBS tvN OCN JTBC MBN O'live XTV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서울 02-253-835-1004 **부산** 051-591-4112 **대구** 053-654-0514 **인천** 032-230-7773 **대전** 042-682-6822
광주 031-855-9112 **전주** 063-333-3333 **제주** 064-420-1088
LA 213-999-7090 **NY** 212-488-1072

상대방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6)

먹지 않는 요리

결혼기념일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이름이 알려진 고급식당에 갑니다. 가격이 매우 비싼 음식을 주문합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맛이 좀 그렇습니다. 불평을 조금 하니 주방을 지휘하는 주방장이 나옵니다. 손님이 주방장에게 음식을 먹어보라고 요구합니다. 주방장이 “내가 만든 음식이지만 저는 먹지 않습니다. 사실 맛도 없고 가격은 매우 비쌌습니다.” 라고 말하면 손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회사 대부분은 회사 직원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401(k)입니다. 직장인이 적은 돈으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플랜입니다. 401(k)에는 회사원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투자종목이 있습니다. 투자종목을 선택할 때 회사는 회사의 이익보다 회사원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신용의 의무(Fiduciary Duty)'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 모두가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신용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렇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 주식 브로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이러한 '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Ameriprise는 일반인의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10,000명을 고용한 큰 회사입니다. 회사 직원인 재정설계사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401(k) 투자종목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소송에 2,75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Ameriprise to pay \$27.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iduciary breach suit, InvestmentNews, Mar. 26, 2015)

이러한 일이 한 금융회사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MassMutual 금융회사는 401(k) 비용이 비싼 이유로 직원들이 회사를 소송했습니다. 회사는 \$31 million으로 합의했습니다. (MassMutual settles 401(k) suit with its employees for \$31 million, Investment-news, June 17, 2016).

*Transamerica 금융회사는 직원들과 \$3.8 million으로 합의했습니다.

*New York Life 대형 보험회사는 현재 직원들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New York Life sued by employees claiming excessive 401(k) fees, Business Insurance, July 21, 2016)

*Fidelity는 미국에서 401(k)을 운용하는 가장 큰 금융회사입니다. Fidelity도 직원들은 은퇴플랜에 비용이 적은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지 않고 비싼 Fidelity 뮤추얼 펀드와 운용비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과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Fidelity settles lawsuits over its own 401(k) plan, CNNMoney, Aug. 18, 2014)

*Wells Fargo, Wal-Mart, Boeing, Lockheed Martin 회사는 직원들과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Newberger Berman 뮤추얼 펀드 회사도 401(k) 높은 투자비용과 저조한 수익률로 직원들이 소송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은 4.7%였지만 같은 기간 인덱스 펀드의 수익

률은 12.1%였습니다. (Self-Dealing With 401(k), WSJ, Aug. 6, 2016)

*Morgan Stanley 직원 60,000명이 자기 회사를 소송했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401(k)은 투자비용은 많고 수익률은 형편없다는 이유입니다. (Employees sue Morgan Stanley over 401(k) plans, CNNMoney, Aug. 19, 2016)

일반 투자자를 도와준다는 금융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도 비용이 많은 투자종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한테도 투자비용을 이렇게 높게 책정했다면 과연 일반 투자자의 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재정설계사는 회사를 위해서 분명 일합니다. 그래야 승진하고 봉급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비싸고 맛이 없는 음식에 대해서 재정설계사는 강력히 항의하지만 똑같은 음식을 본인의 고객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재정설계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데자뷰: 최악 그리고 최악

“I am not a crook”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리처드 닉슨).

1973년 11월 17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400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 약 한 시간 가량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실체이자 몸통이었다. 그날의 기자회견 이후, 닉슨의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미국 국민들과 사법부, 그리고 측근들조차 닉슨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1974년 8월 8일,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닉슨의 사임 연설이 중계된다. “국외적으로는 평화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번영을 위해서 매진해야할 시기에 대통령 개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법정 싸움을 계속할 수 없어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사실 탄핵되기 직전까지 벼랑끝에 몰린 닉슨이 사임을 선택한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닉슨의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는 문장 자체가 사기였던 셈이다.

저로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지금 돌이켜보면 그조차 서막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베일이 벗겨지고 타블렛 PC 속 증거가 보도되고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는 것을 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라는 말을 보면서 닉슨이 43년 전 오늘 전국에 중계했던 거짓말이 떠올랐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I am not fit for this office and should never have been here” (나는 애초에 대통령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 워렌 하딩)

재임기 측근들이 이러 저런 뇌물과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덕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게 된 워렌 하딩이 했던 말이다. 하딩은 1차 대전 후의 사회적 불안과 적색공포를 등에 업고 “다시 정상으로”를 외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하딩은 매우 비정상적인 ‘친구’들을 측근으로, 요직에 등용했다. 그 측근 중 재향군인회장은 퇴역군인을 위한 병원 건립 기금을 횡령했고, 또 내무부 장관은 와요밍주의 티파트과 캘리포니아의 엘크 힐즈에 있는 연방정부 소유의 원유 저장소의 관할을 자신의 것으로 전환한 후,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고 임대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미국이 1차대전 중 압류한 독일 재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니 하딩으로서는 “나는 내 적들과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젠장> 나의 친구들은 나로하여금 밤에 잠 못 자고 서성이게 만드는 존재들이다”라고 괴로움을 토로할 법하다. (하딩은 “다시는 측근들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연설했지만 그 연설을 실행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것도 객지에서.)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약 2주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입을 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돌이켜 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한 세기 전 하딩 대통령 역시 측근에서 터지는 비리와 스캔들로 잠 못 자고 괴로웠다. “나는 대통령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라는 결점에 대한 고백만큼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지만 하딩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게 만든 1920년대의 부정 부패와 각종 뇌물 스캔들을 “스케일”로 비교해보자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그것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듯 .

하야하야

몇 년 전 이 지면에 <닉슨을 파멸시킨 것은 어쩌면...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미국사 칼럼을 쓰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와 워터게이트를 연결시킬 일이 없기를 바랬더랬다. 언젠가는 이 지면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하딩을 추억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더랬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와 하딩 재임기의 부패 스캔들을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았더랬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양한 미국사의 장면을 소개하고 싶어서는 마음 반,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마음 반. 국정원의 지난 대선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2년전 심상시 문고리 3인방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때도, 워터게이트니 하딩 행정부의 부정부패니, 혹은 그랜트의 스캔들이니 연관짓는 칼럼을 쓰고싶은 충동을 애써 자제했었다.

하지만 지난 두 달에 걸쳐, 온 국민을 매일 매일 새로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를 접하면서, 미국 정치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워터게이트와 닉슨의 거짓말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하딩을 애써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닉슨과 하딩을 넘어선 술한 ‘최악’의 데자뷰가 있는 오늘, 한 국민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야를 요구한다.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화점,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집하게!

• 음력을 더하는 화련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거제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류와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마이클 리 모기지

Norwich Commercial Group, Inc. | NMLS #71655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통상 대출
 정부론: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론
 리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홈임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146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98

마이클 리 종합 보험

2017년 의료보험 평균 20%이상 인상
 OPEN-ENROLLMENT 의료보험 무료 상담

www.MyInsuranceMA.com (한국어 웹사이트)

2017년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의료보험료 인상을 대체하는 보조플랜

Accident, Disability, Active Care
 사고시 의료보험과 무관한 혜택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컴 프로텍션 플랜
 암, 심장병, 뇌졸중 보험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플랜

모기지 프로텍션 플랜
 학자금 저축 플랜
 투자성 없이 안전한 연금플랜
 Express Term Life
 Universal/Whole Life

mlee@MyInsuranceMA.com

Michael Lee
 National Producer License No. 17995327
 Massachusetts License No. 2006452
 Licensed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in process)

Health/Life/Annuities/Medicare/
 Disability/Group Benefit/
 Reinsurance 전문 Insurance Broker

Health Connector/HSA/SBSB
 approved Broker

MA, 모든 헬스인슈런스 carrier 가능:
 BCBS, Fallon, HPHC, Minuteman,
 Neighborhood, Tufts, Network, & etc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978.314.8818 |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맛있는 사과를 위해서



가을이면 apple picking을 가곤한다. 과수원에서 직접 손으로 따서 맛 보는 사과는 어느 무기농 슈퍼마켓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싱싱함과 상쾌함을 준다. 과수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과일을 따라고 하는 매출방식이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것보다 40% 이상의 이윤을 준다고 한다. 노동비, 포장비, 운송비등을 들이지 않고 소비자가 과수원에 와서 직접 노력, 포장, 운송까지 해주므로 현실적으로 훨씬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사과를 따러 갈때마다 느끼는 것은 항상 낮은 곳에 열린 열매들은 이미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손이 닿는 낮은 곳에 열린 과일부터 따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더 맛있는 과일을 얻기 위해서 나무의 위쪽으로 손을 뻗어야한다. 아이를 목마도 태우고, 어깨에 올라서게도 해 본다.

영어에는 "Low hanging fruit"이라는 표현이 있다. 직역하면 '낮은 곳에 열려있는 과일'이라는 뜻이다. 의역은 '적은 노

력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실'을 말한다. 5-6년전의 부동산 시장은 모든 과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던 시기다. 구태여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많은 열매가 손에 닿는 곳에 열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열매를 따고, 사회 어느곳에서나 열매를 맛볼 수 있었다. 그러다 2008년 9월에 금융파동이라는 폭풍이 와서 과수원을 강타했다. 많은 과일들이 유실되었고, 얼마남지 않은 Low hanging fruit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의 과일들이 더 이상 없어졌을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무 위를 주시하게 되었다. 나무 위에는 아직도 많은 과일들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 높은 곳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한 것이다.

2005-2008년까지의 한인들의 주택용자는 90% 이상이 무서류 용자였다. 같은 맛있는 열매가 낮은 곳에도 열려있기에 구

태여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은행에서 쉽게 돈을 대출해줘서 쉽게 주택을 구입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전문가, 융자전문인의 실력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짝막한 출근길에는 누가 '레이싱카 드라이버'이고 누가 초보운전자인지 나타나지 않듯이, 주택시장 환경이 그 차이를 없앴다. 수수료만이 경쟁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시장 환경이 폭풍후의 과수원이다. 쉬운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다리가 있는 사람만이 높은 곳에 열려있는 과일을 딸 수 있듯이, 능력있는 전문가만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맛있는 사과를 얻는 방법이 4-5년 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많이 있는 사과 위해서는 사다리를 구하고, 튼튼한 다리로 그 사다리를 딛고, 팔을 뻗어서 사과를 따야만 하는 것이다. '아, 예전에는 팔만 뻗으면 사과를 따는데'는 이제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트럼프의 미국...향후 이민 정책 전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막말과 여성비하로 선거 운동 내내 구설수에 시달리던 트럼프가 지난 9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9월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증시는 요동을 쳤습니다. 9월 아침 로펌에 출근한 저희 이민변호사들도 앞으로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미국 내 모든 이민 변호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일 오전에는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혹은 밟고자 했던 고객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저희는 트럼프가 기존에 했던 언급들과 현실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이민 정책에 대한 예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입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학력, 체류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발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미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알고 자랐으나 서류 미비로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로 많은 수의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제도이므로 트럼프가 1월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마음을 먹으면 의회의 동의와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대통령 자격으로 기존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노동 허가서가 만료될때까지만 혜택을 누리게 하고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지 혹은 노동허가서 만료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 추방 케이스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내내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벽을 쌓겠다고 하는 등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

임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정부차원에서 더 강화하거나 불법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을 격려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강제 추방을 즉각적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 체류자는 정식 이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방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민 판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미 많은 케이스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지연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체포되어 이민 재판을 받을 때 까지 600여 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연을 해소하고 새로운 추방 케이스들도 모두 소화하려면 매우 과격적인 이민 법원의 확대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민 정책을 변화시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선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며 화합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되자 마자 즉각적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를 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미국 국적의 노벨 수상자들이 모두 이민자 출신이었던 것 처럼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어 너무 극단적인 반이민정책은 여론 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지지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민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 정책의 흐름 변화가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업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
사고 상해
성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다중, 지적 법원 관련 업무
파산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렌드로맷(Laundromat) 창고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제
합상 리스텔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워터아운/월뎀 드롭오프 연매상 \$150,000 좋은 렌트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렌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렌드로맷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렌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렌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렌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SAT/SAT I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프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6 Thanksgiving 프로그램 (마감일:11월 11일)

- 기간: 11월 11일(토요일) - 27일(일요일)
- SSAT/SAT I Class: 12월 1월 시험 대비 집중 프로그램, 유능 강사진, 실전 문제 풀이 중심 및 꼼꼼한 관측,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
-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 수업



	SS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AT For High School Students
8:00-8:30	단어 test	단어 test
8:30-12:30	Class(reading/verbal)	SAT Reading Class
12:30-1: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3:30	Writing Workshop	BAT Writing & Language Class
4:00-6:00	TOEFL Class	BAT 2 Subject Class
6:00-7:00	점심식사	점심식사
7:00-8:00	Private tutoring/study hall	Private tutoring/study hall
8:00-10:00	귀가	귀가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